

신협에서 하세요 행복!

아침 운동이든
내 집 마련 계획이든
든든한 노후 준비든
뭐든지 하는 만큼 행복해질 거예요



신협 모델
조보아

2025 제10회
**대한민국
사진축전**

2025 PASK KOREA Photo Festa



협회 한국사진작가협회
THE PHOTO ARTISTS SOCIETY OF KOREA

12.04 Thu - 12.07 Sun

양재동 aT센터 제1전시장

국내 유일 -
사진예술 전문 대형 전시
올해로 10번째 개최

전시기간 2025년 12월 4일(목) ~ 7일(일)

관람시간 오전10시 ~ 오후7시

전시장소 양재 aT센터 제1전시장

주최  협회 한국사진작가협회
THE PHOTO ARTISTS SOCIETY OF KOREA

주관 대한민국사진축전 조직위원회

후원  서울특별시  문화체육관광부

Contents

November 2025 Vol.544

Cover Story



윤기관(마포구지부)_색의 구성

그림자는 빛의 모습이니 그림자가
있어 빛이 보인다

카메라기종 Canon EOS R6m2

IOS 100, 노출 1/800초
조리개값 F/4.0

03	Headnote 가을, 사진예술의 결실을 기대하며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부이사장 김시묵
06	특집 제10회 대한민국사진축전 안내
18	특집 중국사진예술학회 베이징 전시후기 2025 '베이징 국제사진주간' 초청... 주제는 '시선과 사색' 중국서 열린 한국사진 예술전
40	전시광고 [寫光 김삼경 개인전 및 출판기념회] 60년의 세월을 담다 變遷 변천 - 김삼경(진주)
44	전시광고 [강준희 초대전 및 출판기념회] 어린시절 놀던 내 고향 그 모습 안산 옛 사진전 - 강준희(인천)
48	전시광고 [2025 창립 4주년 가람회 전시회] 한사전 빛낸 사진인 10인 작품 한자리에... 가람회 고흥 전시회
52	전시광고 [古岩 김정호 첫 사진전] 침묵의 언어는 내 마음의 빛이 되고... 나한의 품에 안기다 - 김정호(창원)
56	전시광고 [윤영녀 사진전 및 출판기념회] 고요한 내면 깨우는 바람의 손길 산빛, 순간과 영원의 경계에 서다 - 윤영녀(광주)
60	전시광고 [윤은숙 개인전] AI와 합작한 구름 위의 생명력 부억도-과일과 날씨(Fruit & Weather) - 윤은숙(경기 광주)
64	지상전 01 하늘 장막 열린다 희망이 솟는다 어둠과 빛의 경계 - 윤보상(대전)
68	Photo Essay 01 렌즈에 담은 베트남, 그 일상과 나 희구(希求)의 풍경 - 김평산(중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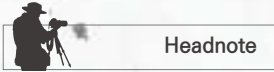
40



52



60



Headnote

가을, 사진예술의 결실을 기대하며

깊어가는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했습니다. 누렇게 익은 곡식과 붉게 물든 단풍처럼, 회원 여러분들의 뜨거운 예술적 열정이 풍성한 열매로 맺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10월, 중국 베이징 국제사진주간에서 23명의 회원 여러분이 초청받아 '한국 사진예술전'을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전시는 한국 사진의 위상과 예술성을 국제적으로 알리는 뜻깊은 자리였으며, 우리 협회 회원들의 역량을 널리 보여준 값진 결실이었습니다. 이처럼 회원 여러분 개인의 예술 세계가 해외로 뻗어 나가는 등 활동 영역이 한층 다양화되고 확장되어 가고 있음을 느끼게 되어 무한한 감동과 자부심을 느낍니다. 협회는 이러한 회원 여러분의 발걸음에 보조를 맞추어, 보다 넓은 무대에서 빛을 발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곧 다가올 12월, 우리 사진계의 연말을 장식할 큰 행사인 '대한민국사진축전'이 개최됩니다. 이 축전은 한 해를 마무리하며 회원 여러분의 다양한 성과와 창의성이 총망라되는 장이 될 것입니다. 많은 회원분이 참여하여 한국 사진의 오늘과 미래를 함께 그려 나가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한편,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과 사진예술의 다원화 흐름 속에서, 협회도 이러한 변화에 민하게 대응하고 회원 여러분의 작품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써 우리 협회가 적극 추진 중인 '사진문화 진흥법'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인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법이 마련된다면 한국 사진문화의 근간을 다지는 계기가 되어 우리 협회뿐만 아니라 한국 사진계의 위상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든든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변화는 도전이자 기회입니다. 협회는 회원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며, 우리 사진예술이 풍요롭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올가을, 회원 여러분 모두가 예술적 영감으로 가득하고, 창작에 보탬이 되는 풍성한 계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1월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부이사장 김 시 묵

Contents

November 2025 Vol.544



68



80



90

한국사진

www.pask.net

발행인 | 유수찬
펴낸곳 |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주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225 대한민국예술인센터 1701호
전화 | 02-2655-3131
팩스 | 02-2655-3130
URL | http://www.pask.net
E-mail | koreapask@daum.net
웹하드 | ID : kpask / PW : kpask
펴낸날 | 2025년 11월 1일
등록일 | 2017년 4월 14일 등록번호 양천, 라00087
위원장 | 백만중
출판팀장 | 손석운
출판위원 | 김명옥, 박경서, 이정용, 최영태, 황길연
사무처장 | 김형준
편집장 | 노성진(010-3387-0244)
제작 | 도서출판 피알에이드(02-2264-1996)
알림 | 회보 "한국사진"에 실린 상업광고와 글은 광고주와 필자의
견해이며, 본 협회나 편집자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투고안내

표지 및 내지원고는 편집디자인 중 작가노트 또는 작품명고 일부는
편집과정에서 변경되거나 삭제될 수 있습니다.

- 72 **Photo Essay 02**
들리지 않아도 듣는다 아버지에 보내는 '손짓 말'
Aria_아리아 - 이현아(대구)
- 76 **지상전 02**
불꽃 같은 삶 다시 피어나리라 꽃의 열정
새롭게 다시 피어나다 - 오문자(성남)
- 80 **KYOTOGRAPHIE 2025**
영혼을 흔드는 아일랜드의 빛과 소리
Eamonn Doyle 에몬 도일 - 노성진

사진강좌

- 84 **Review & Preview**
하이틴 문화의 아이콘이 온다
페트라 콜린스 : fangirl - 김재훈
- 90 **Travel destination**
보았노라 찍었노라 지배하노라
카메라 권력 시대 - 최승언

협회소식

- 94 **Society News / Member Plaza**
이사회 결과 및 협회소식, 분과위원회, 회원동정

업체소식

- 105 **Gallery**
윤은숙 개인전 외

정기구독 1년 10만원
계좌 국민은행 031-25-0001-564 예금주 한국사진작가협회
사무처로 입금 확인하시고 주소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문의·구독 및 배송관련 문의 02-2655-3131
웹하드 | ID : kpask / PW : kpask



사진예술 아카데미 작가과정 제6기 모집

(2026년 3월 개강 예정 / 본 협회 사정에 의해 변경 가능)

신청 자격요건

- 비회원의 경우 : 본 협회 입회를 희망하는 자
- 회원의 경우 : 사진전문교육 수강을 희망하는 자

모집인원

50명 이내(선착순 마감)

교육과정 (학기제 수업 1·2학기제 1년 과정)

: 학기제 수업, 1·2학기제 1년 과정, 대면 및 온라인 강의 진행

: 1학기, 2학기 과목은 최종 교육과목 조율에 따른 결정 후 본 협회
홈페이지 공지에정

수강기간 (단, 협회 상황에 따라 개강 및 종강일자는 변경될 수 있음)

1학기 개강 2026년 3월 20일(금) ~ 7월 24일(금)

2학기 개강 2026년 8월 28일(금) ~ 12월 18일(금)

기획전시회 2027년 1월 중 (추진예정)

수강방법 및 수료조건

사진예술 아카데미 강의실 대면 또는 비대면 수업 진행

졸업작품전시 필수 참여

출석 80%이상 참여, 대면수업 월1회 이상 필수참여, 과제이수 40%

학기별 수강료 : 1학기당 일금 3,000,000원 (2학기 총 6,000,000원)
카드납부 가능

입금계좌 : 국민은행 878301-01-289114, 예금주 : 한국사진작가협회

입금기한 : 2026년 3월 개강 이전까지

사진예술 아카데미 작가과정 제6기 강의장소 안내

이론수업

- 목동, 예술인회관 9층 강의실(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225)
- 크리틱 및 실습수업 장소는 추후 공지

실습수업

- 강의별 추후 공지에정
- 사진촬영 출사 (상황에 따라 조율)

신청 및 문의

전화 문의 02-2655-3131

이메일 문의 pask@pask.net / koreapask@daum.net

이론수업 시 부득이 대면 참여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온라인 수업 병행(Zoom)

모든 강의 종료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재수강 가능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사진예술 아카데미 사진작가과정 제6기

The PASK Master Course of
Photography Art 6th

2025 제10회
**대한민국
사진축전**
2025 PASK KOREA Photo Festa

 **대한민국사진작가협회**
THE PHOTO ARTISTS SOCIETY OF KOREA

2025 PASK
KOREA Photo Festa

12.04 Thu - **12.07** Sun 양재동 aT센터 제1전시장

12.04 Thu - **12.07** Sun

양재동 aT센터 제1전시장

국내 유일 -
사진예술 전문 대형 전시
올해로 10번째 개최

전시기간 2025년 12월 4일(목) ~ 7일(일)

관람시간 오전10시 ~ 오후7시

전시장소 양재 aT센터 제1전시장

주 최  **대한민국사진작가협회**
THE PHOTO ARTISTS SOCIETY OF KOREA

주 관 대한민국사진축전 조직위원회

후 원  **서울특별시**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사진작가협회**
THE PHOTO ARTISTS SOCIETY OF KOREA

서울특별시 2025년 시각예술분야 전시지원 사업

제10회 대한민국사진축전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이사장 유수찬)는 최대의 사진예술 축제인 제10회 대한민국 사진축전(2025 PASK KOREA PHOTO FESTA)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2025 시각예술분야 전시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축제로 많은 서울 시민에게 사진예술의 즐거움을 알리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진입장벽이 낮은 예술로서 사진의 역할을 확대하고자 한다.

시민들에게 사진을 통해 문화예술이 일상적인 경험으로 자리잡는 기회가 되는 문화 예술 콘텐츠를 표방한다. 전시기간은 2025년 12월 4일(목)부터 12월 7일(일)까지 양재aT센터 제1전시장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는 전시예술로서 사진예술의 매력을 많은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무료로 진행된다.

일 시 2025년 12월 4일(목) ~ 7일(일)

장 소 양재 aT센터 제1전시장

개전식 2025년 12월 4일(목) 오후 3시

주 최  **한국사진작가협회**
THE PHOTO ARTISTS SOCIETY OF KOREA

주 관 **대한민국사진축전 조직위원회**

후 원  **서울특별시**  **문화체육관광부**

2025 제10회 대한민국사진축전 전시 개막식 프로그램

전시 개막식

일 시 2025년 12월 4일(목) 15:00 ~ 16:00

장 소 양재 aT센터 1F 제1전시장

주요내용 개회사, 축하, 전시장 관람, 축하공연

진행순서

일 정		내 용	비 고
14:40~15:00	20'	식전공연	
15:00~15:05	5'	오프닝 (사회자 인사 및 행사시작 안내) 및 내빈소개	사회자
15:05~15:10	5'	내빈소개	사회자
15:10~15:25	15'	개회사(이사장), 축하	
15:25~15:30	5'	테이프커팅식 및 기념사진 촬영	주요 내,외빈
15:30~15:40	10'	전시장 관람	주요 내,외빈

개전식에는 전국 약 1천명 정도 사진작가 및 관람객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며, 개막식 행사 취재 언론사가 현장 참석하여 보도 예정



2025 제10회 대한민국사진축전 행사 주요 프로그램

주요행사 | 제10회 대한민국사진축전

- 기간 : 2025년 12월 04일(목) ~ 12월 07일(일)
- 장소 : 양재 aT센터 제1전시장

부대행사 | 2025 AI 이미지콘테스트, 제3회 한국 청소년사진제

- 기간 : 2025년 09월 22일(월) ~ 12월 7일(일)
- 수상작은 대한민국사진축전 전시장에서 전시 진행

주요내용 |

- 국내 유일의 사진장르 대형 전시인 대한민국사진축전 진행
- 축전 전시장에서 2025 협회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 대한 장학기금 수여식 진행

특별전 I ‘故이경모 탄생 100주년 기념 특별전’

- 찰나를 담아, 스스로 역사가 되다
- 이경모 작가의 대표작과 그간 미공개된 작품이 선보임
- 이경모 작가의 시선으로 되돌아보는 한국의 기억
- 시대의 순간을 기록한 사진예술의 깊이임

특별전 II 중국예술사진학회 교류전

- 한·중 양국의 문화교류 및 사진예술 발전의 이정표
- 한·중 양국의 사진예술이 만나는 자리
- 중국예술사진학회와의 교류를 통해 양국의 문화적 다양성과 예술적 깊이를 함께 조명

특별전 III 서울시 25개 구 랜드마크 전시

- 서울을 구성하는 25개의 조각
- 서울 25개 구의 대표 랜드마크를 사진으로 소개
- 도시의 결을 담은 공간 기록 전시
- 서울의 다양한 얼굴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기회

특별전 IV AI 이미지콘테스트, 청소년사진제 수상작 전시

- 미래를 그리다, 세대를 잇다
- 시민들이 참여하는 AI 이미지콘테스트와 청소년 사진제 수상작 전시
- 시민들과 학생들이 사진예술의 창작자로 참여하는 기회
- 12월 7일(일) 시상식 이후 전시 액자는 본인에게 증정

전시장 이벤트

- 스마트폰 사진 무료 출력 서비스
- 시민들 대상으로 한 전문 작가의 사진 촬영
- 사진 예술 애호가를 위한 촬영회

2025 AI 이미지콘테스트



AI 생성 이미지

공모주제 | 생성 이미지

- 이번 콘테스트는 AI 기반 이미지와 사진예술의 융합을 통해 창작 영역을 확장하고 예술 활동 확대
- 수상작 전시를 통해 AI 창작물의 예술적 가치와 공공 활용 가능성을 알리는 계기

참여대상 : 제한없음(무료)

심사방식 : 개별 채점제

- 접수는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사진 파일 업로드
- 심사는 교수 등 외부 심사위원 5인으로 구성되어 온라인으로 개별 채점 진행
- 대상 1점, 최우수상 1점, 우수상 2점, 특선 5점, 입선 50점 선정 예정

전시 및 시상

- 제10회 대한민국사진축전 전시장 특별 부스에 수상작 전시
- 시상식은 전시 마지막 날 진행 후 전시 액자는 본인에게 증정

제3회 한국 청소년사진제



제2회 한국청소년사진제 대상 ©손재원_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감정

공모주제 | 자유작

- 친근한 예술 장르인 사진 창작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의 예술 활동 확대
- 국내 최대 사진예술 전시에서 수상작 전시를 통해 창작 활동의 경험 제공

참여대상 : 초·중·고 재학생 및 동일 연령 청소년 (무료)

심사방식 : 개별 채점제

- 초등부 / 중·고등부로 구분하여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접수
- 심사는 교수 등 외부 심사위원 5인으로 구성되어 온라인으로 개별 채점 진행
- 대상 1점, 최우수상 2점, 우수상 4점, 특선 8점, 입선 40점 선정 예정

전시 및 시상

- 제10회 대한민국사진축전 전시장 특별 부스에 수상작 전시
- 시상식은 전시 마지막 날 진행 후 전시 액자는 본인에게 증정

제10회 대한민국사진축전 – 서울특별시 2025년 시각예술분야 전시지원 사업

행사 주최 단체소개

단체명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대 표 자 : 유 수 찬)			
단 체 현 황	등록사항	등록기관	문화체육관광부 (등록일 : 1963년 1월 30일)		
		설립일자	1961년 12월 17일		
	설립목적	■ 한국사진문화 발전을 위하여 공헌하며 국제 교류를 기하고 회원의 권익 옹호와 지위향상을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사업	■ 국내외 사진문화 교류 및 발전 사업 : 국내 최대, 최고 사진전문 전시회인 대한민국사진축전 진행, 예전 국전에서 민간으로 이관된 대한민국사진대전 진행, 전국 지자체의 공모전 및 촬영대회의 대부분을 협회 지회지부에서 수행 ■ 사진관련 서적 출간 : 월간지 한국사진 (25년 10월 현재 통권 543호까지 발행) ■ 사진관련교육 및 평생교육기관의 설치 : 사진세미나 개최 및 교육장 운영			
	단체소개	■ 1961년 창립한 국내 최대의 사진예술 단체 ■ 한국예총의 10개 구성단체 중 하나이며 유네스코 산하 국제사진연맹 (FIAP)의 한국 대표 회원단체 ■ 현재 전국 167개 지회 · 지부와 1만 명의 정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협회 입회를 위한 교육 및 공모전에 연 인원 약 2만 명이 참여			
시 설 및 전 문 인 력	사무실 주소 연락처 현황	주소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225, 대한민국예술인센터 1701호		
		연락처	대표전화 : 02-2655-3131 팩스 : 02-2655-3130		
			담당자 : 김형준 사무처장 (hj@pask.net / 010-7390-0079)		
		홈페이지	www.pask.net	이메일	pask@pask.net
	조직현황	■ 사 무 처 : 7명 ■ 전국 167개 지회 · 지부로 구성 ■ 2개의 해외지부 (워싱턴, 시드니) ■ 정회원수 : 10,000명 웹회원 : 2만명			

제10회 대한민국사진축전 – 서울특별시 2025년 시각예술분야 전시지원 사업

2024년 주요 행사 사진



2024 서울포토펬스티벌 in aT – 제9회 대한민국사진축전 테이프커팅을 하는 유수찬 이사장과 외빈, 내빈들



유수찬 이사장과 홍창일 고문, 재능대학 이남식 총장



청소년사진제 대상을 받은 손재원 학생(오른쪽)



2024 서울포토펬스티벌 in aT – 제9회 대한민국사진축전 현장



2025 연천관광 전국사진공모전

접수기간

2025. 10. 1. (수) ~ 11. 15. (토)



공모개요

- 공모분야 : 연천군을 소재로 한 관광홍보 가치가 높은작품
관내 자연생태, 자연경관(四季), 향토문화, 축제, 생활상, 특산물 등 연천을 대표하는 소재의 모든사진
- 출 품 수 : 1인당 4점 이내
- 참가자격 : 전국민 누구나 (입회점수 있음)
- 작품규격 : 11" x 14" 칼라 및 흑백 (장정불요)
- 출 품 료 : 2만원 (상장 및 작품집 발송료 포함)
- 입 금 처 : 농협 301-0223-7061-31 (사)한사협 연천지부
- 출품요령 : 작품 뒷면에 작품명, 성명, 주소(우편번호), 전화, 휴대폰 번호 필히 기재
- 출 품 처 : 우11039 경기도연천군죽림읍연로1388번길11 (구)연천사진작가협회사무실

심사일정

- 심사일시 : 2025년 11월중
- 심사발표 : 2025년 11월중(사협홈페이지 www.pask.net)
시상전시 심사발표시 홈페이지 게재

시상내역

- 금상 1점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 상장 및 상금 200만원
- 은상 2점 (사)한국예총연천지회 연천지회장 상장 및 상금 각 50만원
- 동상 3점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연천지부장 상장 및 상금 각 20만원
- 가작 5점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연천지부장 상장 및 상금 각 15만원
- 입선 50점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연천지부장 상장 및 상금 각 10만원

기타사항

- 동일작품이나 유사작, 합성작으로 판명될 경우 낙선 및 상권취소
- 입상(선)작 수상자는 시상식때 **의무참석**(대리참석 가능)
- 응모된 작품에 대한 저작권은 응모자에게 있으며, 주최측은 수상작에 한하여 공익목적으로 복제, 배포, 전시, 전자송신 할 수 있음.
- 출품작 초상권 분쟁 발생 및 기타 제반권리의 문제는 출품자가 책임을 짐

문의 지 부 장 : 010-4142-1200
사무국장 : 010-2762-0879



- 주최 / 주관 : **한국사진작가협회 연천지부**
- 후원 : 연천군,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사)한국예총연천지회

· 제30대 유수찬 이사장 4,000만원 기탁 · 심재안 위원장 2,000만원 기탁

■ 2023년 장학금 기탁

한재원 이사 1,000만원

홍창일 고문 500만원

황일영 장학위 부위원장 500만원

이순옥 장학위원 500만원

이순희 장학위원 500만원

이향룡 부이사장 300만원

김서윤 이사 300만원

임만덕 장학위 부위원장 200만원

정종관 이사 100만원

■ 2024년 장학금 기탁

최임순 이사 500만원

임병호 서울지회 부지회장 200만원

황길연 이사 200만원

이재운 청주지부 회원 10만원

조월신 이사 100만원

권선자 드론사진분과위원장 100만원

이성록 이사 100만원

김윤식 운영자문위원 30만원

김재영 수중사진분과위원장 10만원

최연근 이사 100만원

김정식 초대작가위원회 위원장 20만원

오상관 이사 100만원

장창근 이사 30만원

김의배 홍보위원회 위원장 30만원

박정순 종로구지부장 100만원

권영익 이사 100만원

이동규 예산지부장 20만원

한복례 남양주지부 회원 20만원

이덕만 본부감사 100만원

윤홍선 전)이사 100만원

이상영 이사 400만원

이연화 꽃사진분과위원장 30만원

최복수 이사 30만원

류중석 의왕지부 회원 100만원

박경서 이사 100만원

설병갑 이사 10만원

정연수 이사 20만원

정홍채 구미지부장 10만원

백승의 장학위 감사 350만원

이정애 구미지부 사무국장 10만원

이병화 장학위 부위원장 350만원

김정금 이사 500만원

백만중 부이사장 150만원

이재수 이사 50만원

황양운 전북도지회 사무국장 20만원

오충모 전주지부 회원 20만원

서효석 이사 100만원

김경남 전주지부 회원 20만원

김명주 구미지부 회원 10만원

신경애 이사 10만원

오만테 이사 10만원

정연식 전주지부 회원 30만원

이명수 이사 100만원

김형준 본부 사무처장 100만원

윤영녀 디지털아트분과위원장 350만원

윤보상 이사 50만원

김병주 본부 사무처 과장 10만원

이상희 본부 사무처 직원 10만원

안영민 본부 사무처 직원 10만원

김서윤 이사 100만원

김요한 본부 사무처 30만원

배택수 상임이사 100만원

이성길 산악사진분과위원장 30만원

최영태 이사 30만원

강동구지부 50만원

이흥기 이사 30만원

조동희 강동구지부장 20만원

장일미 평택지부장 200만원

김옥진 이사 30만원

김양호 이사 30만원

강종관 부산지회장 30만원

윤판문 이사 50만원

김정이 부산지회 부지회장 100만원

김병철 광주지회 감사 10만원

신종천 홍보위원회 위원 10만원

김팔영 광주지회 부지회장 10만원

노연섭 순천지부 회원 10만원

김재업 이사 100만원

최차열 부이사장 100만원

이준택 전북도지회 감사 30만원

김동욱 순천지부장 30만원

이내교 이사 100만원

박승호 이사 50만원

김윤정 이사 100만원

2024년 장학금 지급 2,400만원

신현하 운영자문위원장 150만원

박헌재 자문위원 100만원

반봉현 자문위원 100만원

조병두 자문위원 100만원

서성강 운영자문부위원장 50만원

은효진 운영자문부위원장 50만원

김남규 자문위원 50만원

신성우 자문위원 50만원

윤종근 자문위원 50만원

이판수 자문위원 50만원

윤상섭 자문위원 50만원

김동민 운영자문부위원장 30만원

김완기 운영자문부위원장 30만원

박용덕 운영자문부위원장 30만원

김달호 자문위원 30만원

김윤식 자문위원 30만원

신우식 자문위원 30만원

안판중 자문위원 30만원

양범석 자문위원 30만원

오상석 자문위원 30만원

임계환 자문위원 30만원

홍성광 자문위원 30만원

김경호 자문위원 30만원

김삼경 자문위원 20만원

김석원 자문위원 20만원

김은근 자문위원 20만원

김종호 자문위원 20만원

박국인 자문위원 20만원

박춘순 자문위원 20만원

배원태 자문위원 20만원

오정균 자문위원 20만원

윤석환 자문위원 20만원

이명환 자문위원 20만원

정두원 자문위원 20만원

정해선 자문위원 20만원

조용진 자문위원 20만원

최갑수 자문위원 20만원

■ 2025년 장학금 기탁

강돈영 이사 30만원

강경희 자문위원 30만원

박해섭 이사 50만원

민웅기 이사 30만원

산악사진분과위원회 50만원

양성근 나주지부장 20만원

하봉걸 이사 50만원

이창훈 이사 30만원

김종호 고문 20만원

박인호 이사 30만원

정재문 경기도지회장 50만원

한웅상 이사 30만원

전영복 자문위원 20만원

문제민 교육전문위원장 100만원

서산지부 20만원

한병률 운영자문위원 20만원

박노성 운영자문위원 20만원

김복순 이사 100만원

김효숙 자문위원 30만원

손석윤 이사 100만원

황진이 군포감사 50만원

오기중 장학위 부위원장 1,000만원

홍성철 충주지부 10만원

송파구지부 200만원

이연숙 이사 200만원

권경애 환경분과위원장 30만원

이기준 서산지부 20만원

장흥근 강원도지회장 100만원

이순옥 장학위원 200만원

홍성철 충주지부 10만원

전태만 울산지회장 20만원

강우순 울산부지회장 10만원

류미숙 울산부지회장 10만원

김경아 울산사무국장 10만원

최진강 울산홍보간사 10만원

안광수 춘천예총회장 20만원

드론사진분과 100만원

박윤창 자문위원 100만원

박성혁 대구지회 회원 300만원

임성동 이사 50만원

조치호 강남지부장 30만원

학술평론분과 100만원

박병철 정읍지부 회원 100만원

양경창 자문위원 1,000만원

김형준 사무처장 100만원

김시묵 부이사장 200만원

김화연 이사 50만원

김삼택 이사 30만원

임만덕 장학위 부위원장 500만원

최근태 이사(공주지부장) 100만원

이혜경 공주지부 사무국장 30만원

조은자 공주지부 재무간사 30만원

이창선 공주지부 회원 30만원

신경애 이사 10만원

김서윤 이사 100만원

전태만 이사 100만원

임성동 이사 100만원

전태국 안동지부장 50만원

최덕환 익산지부 회원 30만원

김재영 수중사진분과위원장 20만원

김정희 안동지부 회원 20만원

이명수 이사 100만원

우숙자 이사 20만원

이경래 본부감사 100만원

이정애 구미지부 사무국장 20만원

김영록 이사 30만원

오명숙 이사 30만원

이동규 예산지부장 20만원

배경희 천안지부 회원 10만원

윤보상 이사 100만원

김명옥 이사 30만원

김문호 이사 30만원

조성근 자문위원 20만원

박순정 대외협력부위원장 100만원

오만테 이사 100만원

오재용 광주지회 회원 500만원

임혜숙 홍성지부 회원 10만원

김홍찬 대전지회 회원 20만원

황일영 장학위원회 부위원장 300만원

신명현 청주지부 회원 10만원

윤지환 인천지회 회원 20만원

최영태 이사 30만원

정연수 이사 100만원

국향숙 양천구지부 사무국장 100만원

오상관 이사 100만원

백승의 장학위원회 감사 150만원

박옥렬 강릉지부장 20만원

김의배 홍보위원회 위원장 70만원

최연근 이사 200만원

황길연 이사 100만원

윤기옥 은평구지부 회원 500만원

윤판문 광주지회장 50만원

김병철 광주지회 회원 20만원

박건태 이사 30만원

이옥진 다류사진분과위원장 20만원

정종관 이사 100만원

정재문 이사 50만원

손홍현 광주지회 회원 30만원



장학기금관리위원회



장학재단 설립에 동참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한국사진작가협회 회원 여러분께,

한국사진작가협회는 사진예술의 미래를 밝히고, 젊은 인재들이 창작의 길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도록 장학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장학금 지원을 넘어, 사진문화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든든한 토대를 마련하는 뜻깊은 일입니다.

이에 협회는 장학재단의 기틀을 다지기 위한 기금 모금에 회원 여러분의 따뜻한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작은 정성도 큰 힘이 됩니다. 회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는 미래 사진예술을 이끌어갈 큰 희망이 될 것입니다.

부디 많은 분들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장학기금관리위원회 위원장 **심 재 안**

2025년 10월 1일 기준

황치길 자문위원 30만원

김경복 서울지회 회원 50만원

최경순 하남지부장 30만원

김정식 초대작가위원장 100만원

장준복 스포츠사진분과위원장 100만원

이기복 수원지부 회원 20만원

염미영 수원지부 회원 10만원

최현동 광주지회 사무국장 20만원

이재규 증평지부장 50만원

누드사진분과위원회 30만원

이종석 이사 50만원

한현정 홍성지부 회원 20만원

조길호 홍성지부 회원 10만원

장현중 여수지부장 30만원

신용식 홍성지부 회원 10만원

위성턴지부 60만원

이종면 영등포구지부 회원 10만원

정금화 강동구지부 회원 100만원

이윤순 이사 100만원

석도상 산청지부장 50만원

강신재 자문위원 10만원

이애영 중앙예총회장 100만원

채석근 특수사진분과위원장 100만원

조선일 인천지회장 20만원

신명현 충북도지회 사무국장 10만원

어재선 평창지부 사무국장 10만원

신경애 이사 10만원

김대중 청주지부장 20만원

최영근 당진지부장 30만원

의왕지부 100만원

손영자 동작구지부 회원 30만원

특집 중국사진예술학회 '한국 사진예술전' 베이징 전시



2025 '베이징 국제사진주간' 초청... 주제는 '시선과 사색' 중국서 열린 한국사진 예술전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달라도 사진은 서로를 이해하게 하는 힘이 있다.”

2025년 베이징 국제사진 주간에 초대받은 한국사진 예술전에서 한국사진작가협회 소속 23명의 작가 108점의 작품을 선보였다.



축사를 하는 유수찬 이사장



개막식 전 단체기념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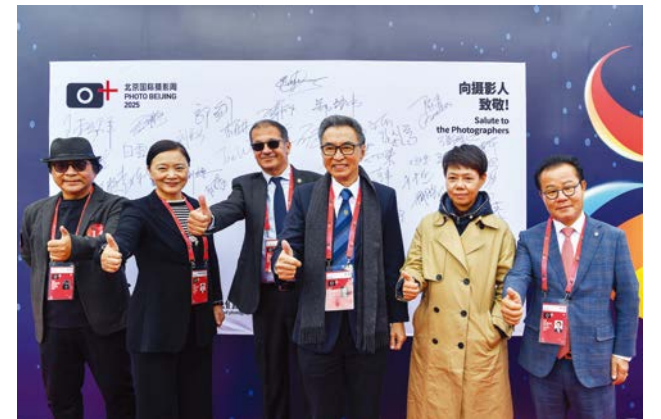
10월 18일부터 27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2025 베이징 국제 사진주간'의 주요 공식 초대전 중 하나인 '한국 사진예술전'이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올해로 13주년을 맞은 '베이징 국제 사진주간'은 국제적인 사진 교류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며 문화·관광 융합 및 학술 혁신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금년 대회는 "이미지: 문명·새로운 품격"을 주제로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이 주도하는 새로운 생산력이 이미지 산업을 재편하는 양상을 조명하며, 문명의 지속성과 혁신을, 이미지를 통하여 해석했다. 행사기간 동안 개막식, 주제전, 베이징 각 갤러리와 병행전, 학술회 "이미지·베이징 대화"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으며, 26개국에서 참여한 사진가들의 작품 약 5,000여 점을 선보여 방문객들에게 풍성한 시각적 향연을 선사하였다.

이번 '한국 사진예술전'은 중국예술사진학회와 한국사진작가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사진작가협회가 주관하여, 베이징 국제사진주간의 메인 전시장인 중화세기단 종합 전시장(1층)에서 열렸다. 전시에는 한국사진작가협회 소속 23명의 작가들이 참여하여 '시선과 사색'(看见与思索)이라는 주제 아래 총 108점의 작품을 선보였다.

전시 주제인 《시선과 사색 (看见与思索)》은 '시선의 기록'과 '사유의 투영'이라는 두 개의 섹션으로 구성되어 '보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라



특집 중국사진예술학회 ‘한국 사진예술전’ 베이징 전시



한국 사진예술전 개전식 후 외빈, 내빈, 전시참여자들의 기념촬영

는 두 가지 주제로 전개함으로써 이미지와 사상의 결합을 통해 관객이 지각과 사고 사이의 연결을 형성하도록 유도하여 사진예술의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폭과 깊이를 조명하였다.

'시선의 기록' 섹션에서는 한국의 풍경, 일상, 전통문화를 구체적인 기법으로 담아내 진솔하고 자연스러운 감정과 분위기를 전달했습니다. 반면 '사유의 투영' 섹션에서는 실험적인 구성과 개념화된 표현을 통해 사진이 사고의 매체로서 지닌 탐구 가능성과 예술적 확장성을 드러내 보였습니다. 이를 통해 관람객들은 한국 사회생활의 생생한 리듬을 느끼는 동시에, 작가들이 존재와 현실에 대해 펼쳐는 깊이 있는 사유의 세계에도 접

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10월 18일 진행된 개막식은 한국사진작가협회 김시묵 부이사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한중 문화예술계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한국 측에서는 ▲주중 한국대사관 공사 참사관 겸 한국문화원장 김진곤 ▲주중 한국대사관 문화원 전시선전과 부과장 박초롱 ▲주중 한국대사관 문화원 기획교류처 주임 왕자린 ▲주중 한국인연합회 회장 고택희 등이 참석했다. 또한, 한국사진작가협회의 ▲유수찬 이사장을 비롯한 ▲최차열, 백만중, 김시묵 부이사장 ▲임성동 전남도지회장(이사) ▲김정현 홍익대 대학원 교수 ▲강돈영 이사 ▲윤영녀 디지털



인사말을 하는 유수찬 이사장



축사 양위안싱 중국예술사진학회 종신 명예주석



축사 김진곤 한국대사관 공사겸 한국문화원장



행사진행 사회를 맡은 김시묵 부이사장



축사 고택희 주중 한인회장



전시작가 대표 최차열 부이사장



한국사진예술전 관람

텔아트분과위원장 ▲윤홍선 예술대학교 3기 회장 ▲임만덕 이사 ▲최연근 이사 ▲장영길 자문위원 ▲이기준 예산지부 부지부장 ▲오문자 정회원 ▲박순정 대외협력위원 등 협회 관계자와 작가들이 대거 자리를 함께 했다.

중국 측에서는 ▲양위안싱 중국예술사진학회 종신 명예 주석 겸 베이징 국제 사진주간 조직위원회 주석 ▲왕첸치, 장샤오수, 왕원양, 중웨이싱 중국예술사진학회 부주석 ▲니카이성 중국예술사진학회 당지부 서기 ▲핑빙 중국예술사진학회 상무이사 ▲야오바오롱 중국예술사진학회 업무부 부주임 ▲장웨청 저장성 사진예술학회 주석 ▲류즈닝 저장성 사진에



전시장 입구



한국 사진예술전1



전시 인증서 수여식 (오문자 성남지부)



전시 인증서 수여식 (이기준 예산지부 부지부장)

술학회 부주석 겸 사무장 ▲스춘 라오닝성 사진예술가협회 주석 ▲허동안 후난성 예술사진학회 주석 ▲한광휘 허베이성 예술사진가학회 주석 등 중국 사진예술계를 대표하는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여 전시의 개막을 축하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사진작가협회의 유수찬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사진은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달라도 서로를 이해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이번 전시가 한중 양국의 예술인들이 서

로의 감성과 문화를 더욱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는 뜻을 전하였다. 양위안싱 중국예술학회 종신 명예주석, 김진곤 주중 한국대사관 공사 겸 한국문화원장, 고탁희 주중 한인회장의 축사가 이어져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이어진 전시작가 대표로서 최차열 부이사장은 “사진은 보는 법의 공유이며, 마음을 연결하는 언어라고 믿기에 이 전시가 한중 양국의 사진가와 관람객 여러분과의 소중한 대화의 장이 되길 바



자금성



자금성 뒷골목 胡同 2



왕부정



만리장성

란다”라는 전시 소감을 전하였으며, 전시작가를 대표하여 오문자 회원이 전시 인증서를 받았다.

이번 전시 참관단으로 방중한 한국사진작가협회 작가 일행(15명)은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5박 6일의 일정 동안 한국 사진예술전 개막식 및 종합 개막식에 참석하는 것을 중심으로, 만리장성(금산령), 자금성, 베이징 전통 골목인 후통(胡同)에서의 촬영 기회를 가졌다. 또한, 왕푸징(王府井)에서 열린 '새 사진전'과 '루홍 사진예술관' 관람

등 다채로운 현지 문화·예술 교류 활동을 펼쳐며 한중 사진예술 교류의 의미를 더욱 깊게 했다.

이번 '한국 사진예술전'은 단순한 작품 전시를 넘어, 사진이라는 매체를 통해 한국의 다채로운 문화와 현대적 사유를 중국 현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양국 문화예술계의 교류와 우의를 증진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

Haida

렌즈의 AF 장치에 영향을 최소화한 적절한 자력

하이다 마그네틱 필터

ND 8, 16, 32, 64, 1000, CPL, 그라데이션 등
촬영에 필요한 다양한 효과 선택 가능



카메라 렌즈 클리닝 키트 CAMERA & LENS CLEANING KIT

블로어, 극세사, 청소용 붓, 펜슬, 센서
청소도구 등 필요한 모든 청소도구를
담은 카메라와 렌즈 클리닝 키트

마그네틱 컨버전 어댑터링 MAGNETIC CONVERSION ADAPTER RING

일반 원형 필터를 마그네틱 필터로 변환
하는 어댑터링
기존에 가지고 있던 필터를 마그네틱으로
활용해 보세요

결로방지 렌즈히터 LENS HEATER

렌즈와 카메라의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해 추운 곳에서도 결로를 막고
카메라가 얼어 작동하지 않는 것을
방지

렌즈용 극세사 매직 랩 CAMERA & LENS CLEANING KIT

렌즈, 카메라를 보호하는 극세사 랩
벨크로처럼 접착 기능을 가지고
있어 크기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사용
가능

www.photoclam.kr
본 사: 경기도 시흥시 마유로 10번길 45 3바 727 2층 / 031-488-9111
서울전시장: 서울시 중구 수표로 14 영한빌딩 별관 1층 / 02-2265-9111

PHOTOCLAM

SUNWAYFOTO®

포토클램이 수입하는 믿을 수 있는 촬영장비



SUNWAYFOTO GH-RPO+

파노라마 · 랜드스케이프 · 정물사진 정밀한 구도설정이 가능한 기어헤드

선웨이 포토의 GH-PRO+는 정밀한 구도설정이 가능한 3-WAY 기어헤드입니다.
플레이트 클램프 부분에 파노라마 베이스가 추가되어 여러장의 사진을 합치는
촬영에서 수평을 맞추기에 용이합니다. 고급 황동 소재를 사용해 기어의 작동이
부드럽고 정교하며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www.photoclam.kr
본 사: 경기도 시흥시 마유로 10번길 45 3바 727 2층 / 031-488-9111
서울전시장: 서울시 중구 수표로 14 영한빌딩 별관 1층 / 02-2265-9111

PHOTOCLAM



펙사, 디지털 액자의 새로운 기준

Pexar가 선사하는 '보관을 넘어 공유하는' 사진 경험

아날로그 시대의 액자가 한 장의 사진을 영원히 고정했다면, Pexar 디지털 액자는 '순간'과 '추억'을 끊임없이 순환시키는 살아있는 갤러리다. Pexar는 단순히 사진을 보여주는 디스플레이 장치를 넘어, 공간의 분위기를 바꾸고 사랑하는 이들과 감성적인 연결고리를 강화하는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 테크의 정점에 있다.

특히, Pexar는 글로벌 메모리 및 저장 장치 시장을 선도해 온 Lexar(렉사)의 기술력, 보안성과 비전이 결합되어 탄생했다. 데이터를 가장 안정적이고 선명하게 보존하고 전달하는 Lexar의 노하우가 집약된 Pexar를 통해, 우리는 정지된 기록이 아닌, 생동하는 추억의 흐름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제 Lexar의 혁신이 담긴 Pexar를 자세히 조명해 본다.



Pexar 디지털 액자, 전문가가 주목하는 3가지 핵심 가치

1. 터치 몇 번으로 사랑을 공유

Pexar는 추억을 공유하는 과정을 혁신적으로 단순화한다. Wi-Fi 연결과 전용 클라우드 시스템을 기반으로 작동하여, 사용자들은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액자로 사진과 짧은 동영상을 전송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을 실시간으로 멀리 계신 부모님의 Pexar 액자로 바로 전송하여 마음을 나눌 수 있다. 또한 스마트 기기의 갤러리검색, 다운로드 등의 사용이 불편한 분들도 터치한번만으로 가족들의 사진영상이 디지털액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끊임 없는 연결성은 단순한 기기를 넘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감성적인 연결고리를 강화하는 소통의 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2. 공간을 완성하는 디자인과 지능적인 기능

Pexar는 기능만큼이나 디자인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간결하고 세련된 미니멀리즘 디자인은 어떤 인테리어 컨셉과도 조화를게 어울리며, 그 자체로 공간의 품격을 높이는 고급 오브제 역할을 한다. 여기에 지능형 센서가 더해져 사용자 경험을 최적화한다. 주변 환경을 감지하여 액정 밝기를 자동으로 조절하며, 사람이 없을 때는 자동으로 절전 모드로 전환되어 불필요한 전력 소모를 줄인다. 이처럼 Pexar는 기술적 완성도와 세련된 미학, 그리고 실용적인 효율성을 모두 갖춘 제품이다.

3. 압도적인 화질과 디테일/ 2K 디스플레이의 생생한 감동

Pexar는 이미지 본연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데 집중했다. 일반적인 디지털 액자와 차원이 다른 2K (2048 x 1536) 해상도를 지원하여, 스마트폰이나 고성능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의 섬세한 디테일과 생생한 색감을 손실 없이 완벽하게 재현한다. 특히, 실내 조명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눈부심 방지(Anti-Glare) 패널을 적용하여, 어느 각도에서 보아도 쾌적하고 선명한 시각적 경험을 제공한다. 이는 마치 미술관에서 원본 작품을 감상하는 듯한 깊은 몰입감을 선사하며, 사진 속 감동을 배가시킨다.

주요 사양 비교

제품	PEXAR 11	C사 10.1
화면	11인치	10.1인치
해상도	2000x1200 (2K)	1280x800 (HD)
픽셀 밀도	212ppi	151ppi
저장	32GB + SD/USB 확장	내장 32GB
램	2GB	1GB
패널	나노 텍스처 글라스 + 안티글레어	IPS
터치스크린	있음	있음
반응 기능	❤️👍😊 이모지 지원	없음
연동	최대 512명	최대 30명
영상	영상 + 오디오 출력	영상 + 오디오 출력
무게	약 630g	약 651g
기능	자동 회전, 시계, 날씨 표시	자동 회전, 시계, 날씨 표시
지원	Wi-Fi / 연동 앱 무제한 클라우드 저장	Wi-Fi / 연동 앱 클라우드 저장

PEXAR POINT

펙사 포인트



인쇄 사진과 흡사한 질감
모든 각도에서 선명하게



다양한 업로드 시스템
스마트폰, USB, SD카드, 컴퓨터 업로드 가능



전세계 어디서나 사진·비디오 전송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내주세요.



걱정없는 저장공간
내장저장공간 32GB+ SD·USB 확장 최대 1TB



사용자를 위한 다양한 기능
시계, 날씨, 수면모드 등 설정가능



렉사가 제공하는 안전한 보안 시스템
사용자의 정보를 안전하고 암호화된 서버로 관리



자동 슬라이스 기능
시계, 날씨, 수면모드 등 설정가능



간단한 사진·영상 다운로드
터치 몇 번으로 사진·영상이 바로 액자 속으로

Pexar, 오늘을 특별하게 만드는 힘

보는 걸 넘어, 반응하는 펍사 디지털 액자

Pexar 디지털 액자는 더 이상 사진을 '저장'만 하는 것이 아닌, 향유하고 '공유' 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안한다. 액자 속에서 흐르는 수많은 순간들은 우리의 일상에 잔잔한 행복과 영감을 불어넣어 줄 것이다. Pexar 디지털 액자와 함께, 잠들어 있던 기억들을 깨우고, 오늘을 가장 아름다운 프레임 안에 담아 우리의 공간을, 우리만의 이야기로 채워보자.

펙사 디지털 액자 활용방법



[1] 우리아이와 가족앨범



[2] 멀리 떨어져 계신 부모님 선물



[3] 매장에서 홍보용 소품으로



2024년 단풍시즌 판매율 1위 브라이트CPL

세계 최초 단풍&야경 특수 자석필터

색보정이 필요없는 자동 보정효과

49mm 부터 95mm까지 사용가능!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5 (흥국생명 1호별관, 2층)
www.benrokorea.co.kr

제품문의 02-775-6681

Lexar

렉사 공식수입원 (주)벤로코리아



세계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는 카메라 메모리 브랜드

동급대비
가장 빠른
속도

+

탁월한
안정성

+

전문적인
A/S

구입 및 대리점 문의
(주)벤로코리아

서울 중구 남대문로 5, 흥국생명빌딩 1호별관 2층
www.benrokorea.co.kr

02-775-6681



CYAN BIRD [MAX]

사진용 여행용 삼각대 **벤로 사이언버드 맥스**

휴대성과 안정적인 20kg 페이로드

20KG
페이로드
36mm대형 볼 직경



BALL
+
Low Profile

볼 + 역방향
로우 프로파일

CARBONE
LEG

강도, 진동흡수
카본재질 레그

47.3
FOLD

접었을 때 높이
47.3cm

156
HIGH

최대높이
156cm

20
PAYLOAD

페이로드
20kg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5 (홍국생명 1호별관, 2층)
www.benrokorea.co.kr

제품문의 **02-775-6681**

- 사진여행의 시작 사진을 전문으로...

2025년 촬영계획

- 1월
 - 중국 패상 초원 촬영
 - 일본 비에이 촬영
- 2월
 - 일본 비에이 촬영
 - 아이슬란드 오로라 촬영
 - 노르웨이 로포텐 오로라 촬영
- 3월
 - 노르웨이 로포텐 오로라 촬영
 - 인도네시아 숭바/룽복 촬영
- 4월
 - 체코 남모라비 봄 풍경 촬영
 - 일본 장노출/후지산 반영 촬영
- 5월
 - 일본 장노출/네모필라/등나무 꽃 촬영
 - 인도네시아 숭바/룽복 촬영
- 6월(일본 비에이 꽃/호수 촬영)
 - 이탈리아 돌로미티 봄 촬영
 - 인도네시아 숭바/룽복 촬영
- 7월(일본 비에이 꽃/호수 촬영)
 - 아이슬란드 봄 풍경 촬영
 - 인도네시아 숭바/룽복 촬영
- 8월(말레이시아 섀포르나 촬영)
 - 스코틀랜드 장노출 촬영
 - 인도네시아 숭바/룽복 촬영
- 9월(아이슬란드 가을 촬영)
 - 스리랑카 사진 풍경 촬영
 - 인도네시아 숭바/룽복 촬영
- 10월
 - 체코 남모라비 가을 풍경 촬영
 - 아이슬란드 가을 촬영
- 11월
 - 스리랑카 사진 촬영 여행
 - 인도네시아 숭바/룽복 촬영
- 12월
 - 남인도 차발 촬영(World Photo)
 - 일본 비에이 촬영

- 일본 3박4일 장노출 195만원(대한항공)
- 아이슬란드 14박15일, 7월(650만원)
- 남모라비 10박11일, 대한항공(450만원)
- 숭바 5박6일 350만원(대한항공)
- 룽복 4박5일 270만원(말레이시아항공)
- 스리랑카 사진여행 330만원
- 아이슬란드 14박15일(가을)



- 말레이시아 섀포르나 250만원



www.phototour1.com 031-272-2210 | 010-5265-3119 에스애포(주)포토투어



PHOTOTOUR



대한민국 사진대전 사진축전

작품출력 및 액자제작
-회원전, 사진작품전 전시기획 대행

ArtPlus

아트플러스는
고품격 디지털 프린팅 솔루션으로 구성된
혁신적이고 고급스러운 기능으로
더욱 우아하고 다양하게 디스플레이 할 수 있는
한지, 페브릭, 파인아트, 캔버스는
은은한 색감과 온화한 느낌의 작품을
재현하는 매력적인 원목프레임으로
고품격 작품을 표현합니다

Artluxe

아트룩스는
고품격 디지털 프린팅 솔루션으로 구성된
혁신적이고 고급스러운 기능으로
더욱 우아하고 다양하게 디스플레이 할 수 있는
토탈 프리미엄(실내, 실외) 자외선/가습기에 강한
갤러리 전시액자, 사진출력 및 광고
포토 패널 시스템입니다.

한사전, 사진축전, 그룹전, 개인전, LED전시, 도록제작, 전시기획 대행
파일전송(이메일) bebe9006@naver.com

ArtPlus
TOTAL PREMIUM PHOTO PANEL SYSTEM
Artluxe

-사진편집·출력·전시기획- 파일전송(이메일) bebe9006@naver.com
Tel : 02-2653-9007 Mobile : 010-4610-9007
[한국사진작가협회 홈페이지 WWW.pask.net, 배너광고, 월간한국사진 광고 중]



“마음을 담는 작품”

-사진편집·출력·전시기획-

ArtPlus
LINE UP CARD



ArtPlus CANVAS 캔버스

유화그림 같은 느낌으로
작품의 선명함을 한층 높입니다



ArtPlus PEBBICK 페브릭

모래알같은 진한 표면으로 작품에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ArtPlus FINEART 파인아트

은은한 색감으로 고급스럽고
품격있는 작품을 표현합니다



ArtPlus KOREAN PAPER 한지

한국적인 은은한 색감과 온화한
느낌의 고품격 작품을 표현합니다

Artluxe
LINE UP CARD



Artluxe CRYSTAL CLASSE 크리스탈클래스

고광택을 유지하면서 아크릴보다 진한
고광택으로 작품의 선명함을 한층 높입니다



Artluxe SUREVUE 슈어뷰

광택과 조명반사를 없애고
작품의 선명도와 집중도를 높여
품격있는 표현이 가능합니다.



Artluxe CHROME 크롬

실버색상의 메탈릭한 느낌으로
작품에 차원이 다른 표현이 가능합니다



Artluxe GOLD 골드

골드 색상으로 고급스럽고
품격있는 작품을 표현합니다

● 아트룩스 유사상호, 출력필름 합성지, 중국산 필름 사용등
불량제품 피해 주의바람. 문의 010-4610-9007

FEEL YOUR SPACE
TOTAL PREMIUM PHOTO PANEL SYSTEM

친환경 자연주의 닥나무 닥운용 설경한지



장섬유인 닥나무 운용을 그대로! 소프트한 설경한지의 질감이 그대로 살아있는 닥운용 설경한지

한지인화 두진만의 프로파일 적용 미세한 디테일 까지...



설경한지 입체액자



닥운용 설경한지 캔버스 원목입체액자



설경한지 캔버스



사진축전 바로가기



한지액자 바로가기

국내산 전주 설경한지만을 사용합니다.

www.dujinart.com
전화상담. (031)314-1085



두진액자 바로가기



두진아트 바로가기

사진전시 실적 업계 1위

1만명 전문사진가의 선택! 사진에 관한 모든것! 두진아트

개인전 회원전 그룹전 사진전시는 두진아트에서 최신 트렌드 작품액자로 준비하세요.

D5띄움 액자 뒷면



D5띄움 액자



(화이트,우드,월릿,블랙)



캔버스 액자 뒷면



캔버스 액자 (두께 30mm,45mm)



아트캔버스 액자 (두께 30mm,45mm)



디아섹 뒷면



독일제무반사 디아섹



고광택 디아섹



지부행사용 소품액자 (화이트,우드,월릿,블랙) .사이즈 (3R,4R,5R,6R,8R,11R)



액자보러가기



두진아트 TEL. 031-314-1085
경기도 시흥시 서해안로 1355 (신천동496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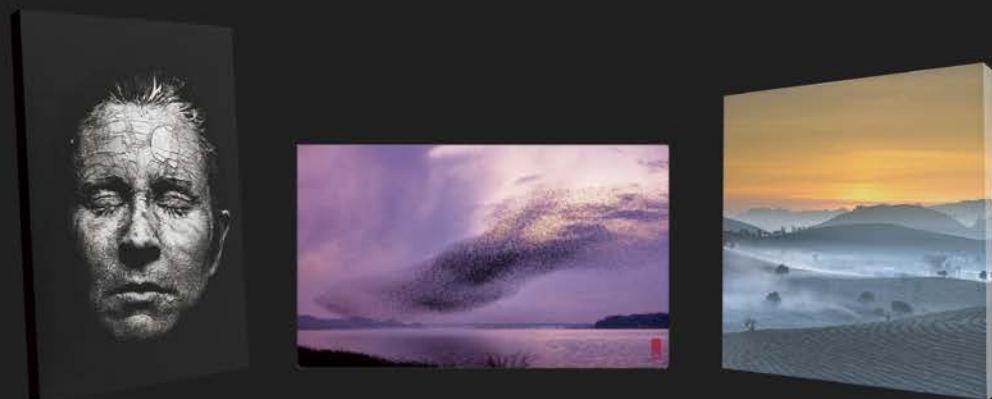
제품사양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PC 인터넷 . www.dujinart.com / MO 모바일 m.dujinart.com

NAVER 두진아트



사진의 가치는 프레임에서 완성됩니다

수십 년간 사진과 함께한 아뜨레는,
작품의 깊이를 더하는 액자만을 만듭니다



전화문의 1544-2188 (주중 09:00-18:00 | 점심 13:00-14:00)



ARTTRE FRAME

Arc diasec 아크 디아섹
고품격 프리미엄 아크릴액자



Premium acrylic 프리미엄 아크릴
화이트엣지 아크릴액자



Gallery frame 갤러리랩
신개념 랩핑액자



Canvas frame 캔버스랩
은은한 색감과 패브릭의 질감이 매력적인 캔버스액자



Black wood frame 블랙우드
고품격 프레임액자



Gallery wood frame 갤러리우드
슬림하고 심플한 무늬목 몰딩으로 모던함 극대화





수목에 깃들었다

©You Su Chan

월간 한국사진 표지 투고작을 모집합니다!

월간 한국사진 표지는 우리 협회의 얼굴입니다.

이에 표지투고 선정작 작가에게 더 많은 자부심과 혜택을 드리고자 표지 선정작가에게 30만원 사진창작활동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단, 선정작가에게 책자는 5부만을 배부됩니다. 추가 구매 가능합니다.)
구상, 비구상 뿐만 아니라 현대사진 패러다임의 사진작품이 게재되어 월간 한국사진이 진정 대한민국 대표 사진전문 잡지로 사진예술인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월간 한국사진 표지투고에 회원 여러분의 많은 도전을 기다리겠습니다.

월간 한국사진 11월호 표지원고 투고작품



· 강영복
· Climate Change I
(선물)
물의 생각을 통해 12지지(十二地支)를 그리려고 했다.
이 작품은 12지지 중 5번째인 용을 닮은 타조가
년말을 맞이 해 황금마차를 보내오고 있는 그림을
그린 것이다.
니콘 D800, f/8, 1/250초, ISO100, EXP 0.7,
사용렌즈 니콘 70-200mm, 초점거리 150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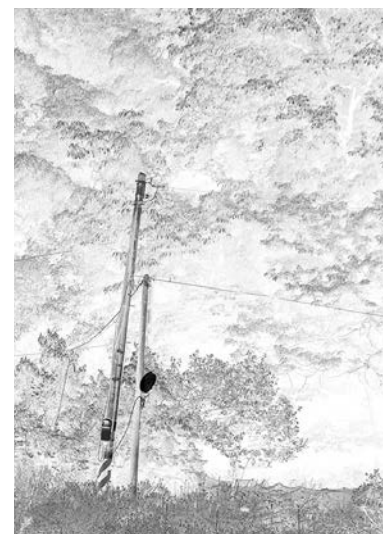
· 손한성
· 홍시
한국의 가을 풍경을
상징하는 푸른 하늘과
흰 구름, 빨갛게 익은
홍시를 우리의 옛 정취가
물씬 묻어나는 향리의
어느 고택에서 담았
습니다.
Canon Eos 5D Mark III,
렌즈 Canon 24-70,
f/11, 1/125초, iso 200



· 윤기창
· 가을엽서
자작나무 낙엽은 또다른 모습으로
니콘 D800E
iso200 f5.6 1/40



· 장덕재
· 자작나무
자작나무 외모는 하얗고 벗기
면 종이처럼 벗겨지는 수피를
갖고 있는 나무. 하얀 수피 위
에 드문드문 검은 무늬가
나타난 모양이 인상적이었고
하늘을 향해 짙게 뻗은 모습
의 숲은 마음을 안정되게 해
주었다. 대자연의 신비로움에
감탄 너무나 아름다운 숲을
로우 앵글로 촬영 카메라에
담았다
캐논, 조리개 5.6,
셔터속도 1/60, 35mm렌즈



· 홍이선
· electric pole



전시광고



©김삼경_變遷 변천_1980년 사진(삼천포)

[米壽(미수, 88세) 기념 寫光 김삼경 개인전 및 출판기념회]

60년의 세월을 담다

變遷 변천

김삼경(진주)



©김삼경_變遷 변천_1986

寫光 金三卿 寫真集 變遷

전시장소	경남문화예술회관 제2전시관
전시기간	2025년 11월 13일(목) ~ 11월 18일(화)
출판기념회	2025년 11월 15일(토) 17:00
전시주관	진평포토클럽
전시후원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경남도지회,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진주지부, 경상포토클럽
전시작가	김삼경(010.3863.3788)



©김삼경_變遷 변천_1997년 순천



©김삼경_變遷 변천_1974년 진주



©김삼경_變遷 변천_2021년 하동

순간 순간이 모여 역사가 되었다.
60년, 한 갑자가 흐르면서 숨가쁘게 달려온 세월이
이제 사진으로 남아 그 시대를 증명하고 있다.
그 기록이 한국인의 정서를 자극하기에
사광의 작품은 감흥이 크다



©김삼경_變遷 변천_2011년 경주



©김삼경_變遷 변천_2012년 진주



©김삼경_變遷 변천_2017년 진주

1967년, 어두운 암실에서 붉은빛 조명 아래 처음 마주한 현상의 순간은, 제 사진 인생의 기원이며 본질을 깨우쳐 준 원체함입니다. 무(無)의 백지 위로 유(有)의 형상이 서서히 드러나는 그 마법 같은 과정은, 마치 미지의 세계가 스스로 드러내는 신성한 의식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느낌과 기다림의 시간은 단지 필름을 현상하고 인화하는 기술적 과정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진실이 인내의 시간을 거쳐 비로소 모습을 드러내는 존재론적 성찰의 과정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잔상(殘像)은 6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 내면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모든 작업의 뿌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시대는 눈부신 속도로 변모했습니다. 아날로그 필름에서 시작된 사진의 역사는 이제 디지털 혁명을 거쳐 인공지능(AI)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또 다른 변곡점을 맞이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변천'은 제가 담는 피사체를 바꾸었고, 제 사진 작업의 기술적 방법론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빠름과 효율성만을 강요하는 강박 속에서도, 저는 캄캄한 암실에서 느꼈던 '느림과 기다림'의 미학을 잊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진가들이 '찰나의 예술'을 미명으로 즉각적인 결과만을 추구할 때, 저는 역설적으로 그 빠름 속에서 느림의 가치를 포착하려 노력했습니다. 동일한 피사체를 수십 번 넘게 셔터를 누른 행위는 단순히 최적의 한 컷을



©김삼경_變遷 변천_2014년 창녕



©김삼경_變遷 변천_2017년 진주



©김삼경_變遷 변천_2006년 무주



©김삼경_變遷 변천_1980년 사천(삼천포)

찾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빠름과 느림이 교차하는 삶의 순간 속에서, 사진이 담아내는 본질적인 의미를 터득하려는 수행(修行)의 과정이었습니다.

결국 이 작품집은 60여 년간 제가 지나온 '시간의 변천'과 그 속에서 제가 경험한 '사진의 변천'에 대한 깊은 사유의 결과물입니다. 필름의 입자가 지닌 아날로그적 감성부터 디지털의 선명함이 선사하는 새로운 가능성까지, 제 작품은 이 거대한 흐름의 흔적들을 오롯이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작업은 여전히 미완의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셔터를 누를 힘이 남아있는 한, 저는 더 깊은 영상 언어를 품은 작품을 찾아 끊임없이 탐구하며 저의 작업을 이어갈 것입니다.

미수(米壽)라는 또 하나의 전환점에서 이 사진집을 출간하게 된 것은, 지난 세월에 대한 회고이자 동시에 다가올 시간에 대한 다짐입니다. 이 오랜 여정을 가능하게 해준 제자들과 선후배 사진인들께 깊은 감사를 전하며, 묵묵히 제 곁을 지켜준 가족, 특히 정연순 여사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이 책이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을 포착하려는 한 사진가의 작은 기록으로 남길 바랍니다.



전시광고



©강준희_안산 옛 사진

[강준희 초대전 및 출판기념회] 어린시절 놀던 내 고향 그 모습 안산 옛 사진전

강 준 희(인천)

전시일시 2025년 12월 2일(화) ~ 12월 7일(일)
전시장소 안산예술의전당 화랑전시관 제2전시실
개막식 및 출판기념회 2025년 12월 3일(수) 오후3시
전시작가 강준희(010-6322-3955)



©강준희_안산 옛 사진



©강준희_안산 옛 사진



©강준희_안산 옛 사진

70대 은빛 나이... 추억이 담긴 내 고향 안산의 옛 모습을 본다.
다시 돌아 갈 수 없는 곳이기에 더욱 그림기만하다.



©강준희_안산 옛 사진



©강준희_안산 옛 사진

어둠이 짙게 깔린 저녁 컴퓨터 의자에 앉아 옛 필름을 정리하다 커튼을 젖히고 창밖을 보니 부슬부슬 가을비가 내린다.
잠깐 생각에 잠긴 나는 20대까지 살았던 정든 고향에서의 엄마 품을 그리워하며 허전함에 빠져든다.
이젠 70대에 이르는 은빛 나이에 접어든 나는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 결혼하며 가족을 이루고 행복한 삶을 살아왔지만 이렇듯 허전하고 홀로 외롭다는 생각이 나면 습관적으로 청소년기까지 살았던 고향 생각이 난다. 원시동 시골마을과 초지동 한학골에서 함께 놀던 친구들이 보고 싶다. 지금은 안산천과 화정천이 스며드는 물길도시가 되었지만...



©강준희_안산 옛 사진



©강준희_안산 옛 사진



©강준희_안산 옛 사진

사진가로서 40년을 살면서 고향 안산을 담아냈던 옛 필름을 정리하며 사진 속 모습대로 옛 기억을 공유하고자 한다.
나에게 묻는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 사진을 찍었는가?”라고 나는 이 질문에 확신을 가지고 답을 할 수는 없지만 필름 속의 옛 모습을 나만의 옛 추억을 그리워하며 나만의 추억의 장소가 아닌 이 시절을 함께 살았고, 그리워 하는 모든 이들과 소중한 추억을 함께 공유하고자 한다.



©강준희_안산 옛 사진



©강준희_안산 옛 사진



©강준희_안산 옛 사진

별일 아닌 듯 사진을 좋아하게 되었고 사진 입문 후 초보 시절을 지나 이제 사진을 알게 되면서 그 마력에 더 깊게 빠져든다. 한때는 몸도 마음도 힘들었던 시간도 있었지만 지금은 내 삶의 한 부분이고 언제까지나 좋은 동반자이자 내 삶에 중요한 한 축이다.
오늘 보여지는 옛 내고향 안산의 모습에서 엄마 품을 느껴려 한다.



©강준희_안산 옛 사진

[2025 창립 4주년 가람회 전시회]

한사전 빛낸 사진인 10인 작품 한자리에...

가람회 고흥 전시회

대한민국사진대전 초대작가 & 추천작가 모임인 가람회가
창립 4주년을 맞이하여 ‘우주항공 중심도시’ 고흥에서 전시를 합니다.



©문익희_꽃상여, 떠남의 길 위에서

박 오 복 [사이에서]

우리는 늘 사이에서 흔들리며 살아간다.
세속과 성스러움 사이에서, 빛과 어둠 사이에서,
시간의 몰매를 맞으며 세속에서 점점 녹슬어가는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보이지도 않고 닿을 수도 없는
저 너머의 영원과 이상을 갈망한다.
그건 가능성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인간의 실존적 조건이기 때문이리라.
우리의 삶이란 이 애처로운 갈망을 껴안은 채
이 둘 사이에서 서성이는 것일 것이다.



©박오복_사이에서

문 익 희 [꽃상여, 떠남의 길 위에서]

상두꾼들의 어깨 위로 꽃상여가 오르고, 그 무게는 한 생의 무게이자, 남은 자들의 슬픔이다.
종지기의 종소리에 상두꾼들은 발걸음으로 박자를 맞추고, 상여가 내려앉은 자리는 상주들의 울음소리가 바람이 되어 흩어진다.
꽃상여에 불길이 내려와 앉으면, 삶의 형체는 사라지고 남겨진 사람들은 다시 삶을 채운다.
이 사진은 삶을 정리하고 떠남의 의례 속에서 인간의 순환과 공동체의 숨결을 기록한 사진 작업이다.



©박만석_흐름의 숲, 흔들림의 언어

박 만 석 [흐름의 숲, 흔들림의 언어]

“이 숲은 내게 붓이고, 색이며, 리듬이었다.”
숲의 질서와 혼돈, 움직임과 고요를 하나의 이미지 안에 담고자 ICM기법을 활용하여 완성한 추상 풍경 시리즈다. 이 작업은 자작나무 특유의 수직적 형상과 가을의 색채가 결합된 숲의 리듬을 감각적 움직임으로 표현하고자 한 시도이며, 자연의 요소를 해체하고 재조합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이를 통해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아니라, 숲 전체가 하나의 유기적인 존재로 호흡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제공한다. 사진 속에서 나무는 개별적 실체라기보다 붓질의 흔적이며, 땅과 하늘, 빛과 그림자, 단풍과 수피가 함께 움직이는 하나의 리듬을 만들어낸다. 숲의 어지러움은 흐름 속에서 질서가 되고, 정지된 사진 속에는 의도된 동작의 에너지가 남아 있다.
흔들리는 프레임 안에서 자연은 감정이 되고, 이미지 속 색과 선은 관객의 해석에 따라 다양한 내면의 풍경으로 확장되기를 바란다.

전시일시

2025년 11월 16일(일) ~ 11월 30일(일)

전시장소

희정미술관

전남 고흥군 남양면 고흥로 3764(남양면 중산리)

전시오프닝

2025년 11월 22일(토) 오후3시

전시작가

문익희 박공덕 박만석 박오복 윤현옥

전승원 전태국 정 동 주우신 함춘동

박 공 덕 [금일도 이야기]

이 사진은 단순히 ‘사라짐’을 애도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무엇을 잃고, 무엇을 대신 얻고 있는지를 스스로 묻기 위한 것이다.
속도의 시대 속에서도, 느낌이 품고 있는 삶의 감각을 잃지 않기를 바란다.
그 감각은, 바람의 숨결 속에 아직 남아있다.



©박공덕_금일도 이야기



©윤현옥_숲길

전 승 원 [백석탄의 전설]

“자연의 신비함을 찾아” 신성계곡의 절정은 백석탄이다. 수천, 수만 년의 시간동안 물과 바람이 깎고 다듬은 흰 바위들이 널려 있는 독특한 형태의 계곡으로 희다 못해 푸른빛이 감도는 바위와 돌들이 즐비하다. 멀리서 보면 계곡에 흰 눈이 덮인 것처럼 하얗게 보이고 가까이 가보면 잔잔한 물줄기가 그 거친 바위를 보드랍게 다듬어놓은 모습은 아름다우면서도 신비롭기만 하다. 이곳은 약 7000만 년 전에 이뤄진 화산활동의 결과물로, 용암이 빠르게 흐르다 이처럼 신비로운 모양새로 나를 매료 시킨다. 백석탄은 지질학적으로 보면 '포트홀'(pot hole)이다. 우리말로는 “돌개구멍”이라고 한다.

전 태 국 [생명과 희망]

바위틈에서 자라는 나무와 꽃은 생명의 끈질김과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척박한 환경을 이겨내고 피어나는 그 모습은 삶의 시련을 극복해 나가는 우리의 의지를 닮아 있습니다.



©전승원_백석탄의 전설



©전태국_생명과 희망

윤 현 옥 [숲길]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림다.
 숲과 길이 있는 그곳에는
 연둣빛 속살이 햇살에 반짝이고
 찬란한 청춘의 시절이 지나는 자리에는
 저마다의 웃음과 사연들이 스며있다.
 그러다가 언제나 처럼 새로운 세계를 준비하는 길 위에
 나는 나를 마주하고 서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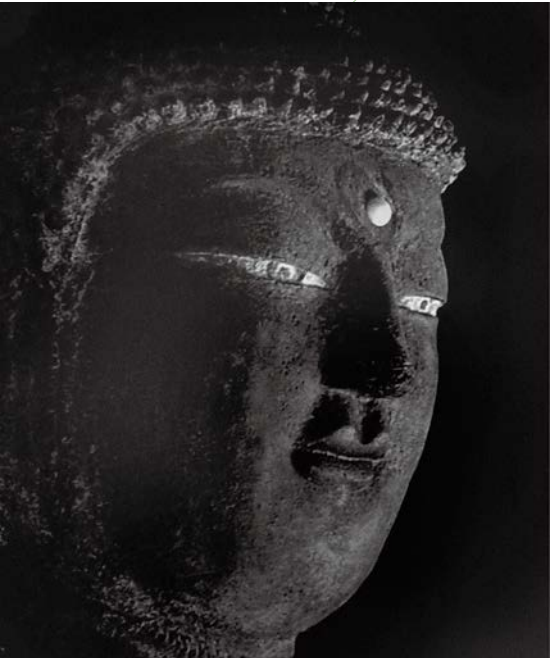
©정동_천년의 미소

정 동 [천년의 미소]

천년의 미소!~
 그 훨씬 오래전부터 인간의 삶은 희, 노, 애, 락의 반복이었을 것이다. 다만 기록되지 않았을 뿐~~
 미소는 시대적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그 본질은 즐거움을 추구하는 거다.
 천년을 이어온 이 미소는 우리의 삶의 고향이고 어머님께 물려받은 정통성이다.

주 우 신 [자(慈)]

감(感)
 보일 듯 말 듯,
 감정의 조각들에
 빛깔의 옷을 지어 입혔다.
 노(怒), 애(哀), 묵(默), 그리고, 자(慈)...
 서로에게 위안이 된다.



©함춘동_반안(半眼)

함 춘 동 [반안(半眼)]

반안반개(半眼半開)
 비보사찰(裨補寺刹) 실상사(實相寺),
 천년(千年)을 지킨 자안(慈顔),
 단단한 형상(形狀)과
 반안반개(半眼半開)의 사유(思惟)가
 중생(衆生)의 삶에
 균형(均衡)과 조화(造化)의 지혜(知慧)를 비춘다.



©주우신_자(慈)

[古岩 김정호 첫 사진전]
침묵의 언어는 내 마음의 빛이 되고...
나한의 품에 안기다

김 정 호(창원)

전시일시 2025년 11월 25일(화) ~ 12월 1일(월)
전시장소 창원문화재단 성산아트홀 제6전시실(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81)
초대일시 2025년 11월 26일(수) 오후6시30분
전시작가 김정호(010-2845-0414)



©김정호_나한의 품에 안기다 #001

이번 전시는 오랜 시간 마주해 온 사찰과 불상, 그리고 그곳을 감싸는 자연의 숨결을 담았습니다. 저는 카메라 앞에서 침묵하는 돌과 구름, 빛과 어둠이 서로 대화를 나누는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언어를 넘어선 또 다른 언어였으며, 사진은 그 기록이 되었습니다.



©김정호_나한의 품에 안기다 #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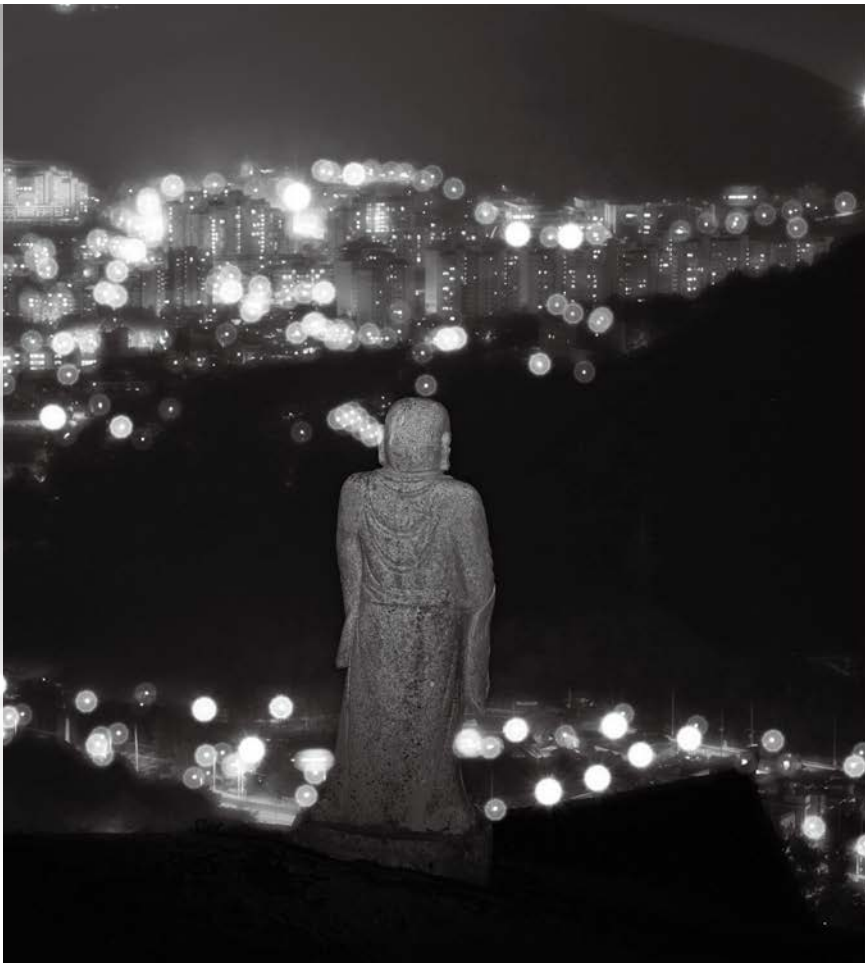
2024년 가을, 우연히 도심 속 사찰 ‘삼밀사’를 찾았다가 다양한 포즈와 표정을 지닌 500여 나한상을 마주하게 되었고, 그 매력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나한의 얼굴과 표정은 볼 때마다 처음 보는 듯 늘 새로웠기에, 단 한 두 번의 방문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결국 전시를 준비하며 대부분의 주말은 삼밀사를 찾았고, 약 30여 차례 이상 발걸음을 하였습니다. 사계절의 빛과 공기를 담고자 이른 새벽, 일출, 아침, 낮, 석양, 밤, 비 오

는 날과 안개 낀 날까지 다양한 시간과 날씨 속에서 카메라를 들었지만, 늘 부족한 듯 싶었습니다. 혹여 저의 촬영으로 사찰에 작은 폐가 될까, 발걸음 하나 하나에도 경건한 마음을 지니고 있었으며, 스님을 향한 존경심은 그림자 하나조차 밟을 수 없다는 마음이었기에,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지 않았습니다. 우연히 스칠 때면 합장으로 가볍게 인사 드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서시(Poem)

돌은 말이 없지만
세월의 얼굴로 증언하고,
구름은 머물지 않지만
잠시 기도의 자리를 빌려줍니다.

빛은 사라지지만
그 순간 마음에 남아 길이 되고,
침묵은 공허하지 않고
깊은 울림이 되어 우리를 감쌉니다.



©김정호_나한의 품에 안기다 #006



©김정호_나한의 품에 안기다 #009



©김정호_나한의 품에 안기다 #008



©김정호_나한의 품에 안기다 #011

언제나 반갑게 맞아준 사찰의 백구 ‘진순이’도 고마운 인연이었습니
다. 어느 순간부터는 카메라 가방에 진순이를 위한 작은 간식을 챙
기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또한 마음이 무거울 때면 법당 안 부
처님을 바라보며 내면의 짐을 내려놓았고, 간절한 바람이 있을 때면
무릎 꿇어 기도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처음 우연히 이곳을 마주한 날부터 오늘 전시가 열리기까지의 여정
은 저에게 있어 한순간 한순간이 귀하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전
시 준비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찾아 제 작품을 마주해주신 여러분들께, 제 여정 속 한 장면
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자신의 내면과 마주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김정호_나한의 품에 안기다 #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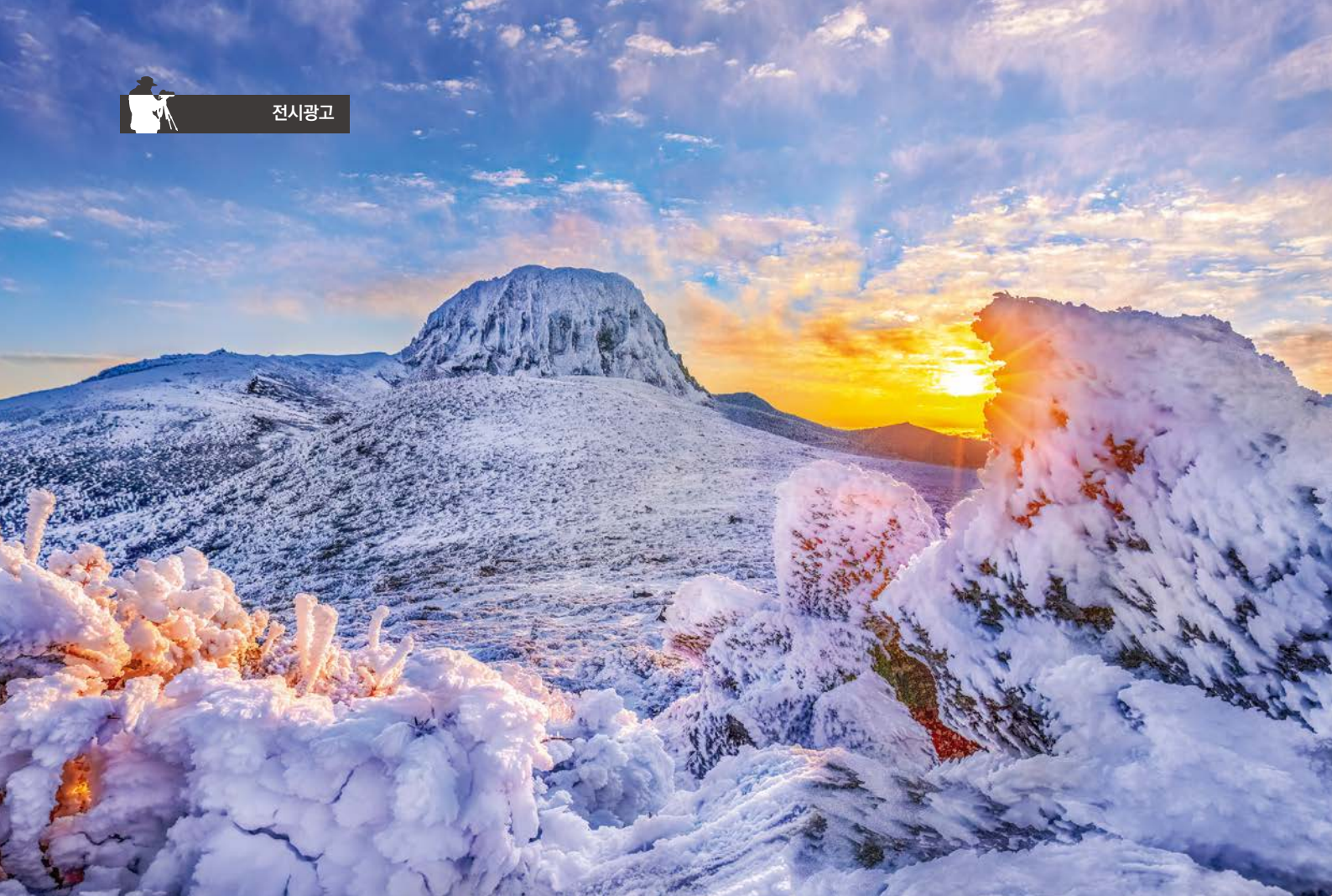


전시광고

[윤영녀 사진전 및 출판기념회]
고요한 내면 깨우는 바람의 손길
산빛, 순간과 영원의 경계에 서다

윤영녀(광주)

전시일시 2025년 12월 10일(수) ~ 12월 16일(화)
전시장소 갤러리이즈(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길 52-1)
출판기념회 2025년 12월 13일(토) 14시
전시작가 윤영녀(010-2101-2780)



©윤영녀_한라산 국립공원 겨울

산정에 오르셨을 때, 마치 선계를 거니는 듯한 경이와 잊지 못할 짜릿함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난 이십 년 가까운 세월, 산은 제 영혼의 연인이자 가장 엄정한 스승이었습니다. 어둠 속 길을 찾는 이에게 희망의 빛이 비치듯, 새벽 인적 없는 산길을 오르는 여정은 숙명이며 동시에 설렘이었습니다. 그 길 위에서 제 카메라는 단순한 시선의 기록자를 넘어, 웅장한 자연 속에서 길어 올린 사색과 가슴 저미는 경외심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기상 악화로 카메라를 꺼내지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을 때가 많았지만, 가끔은 눈앞에 펼쳐진 비현실적인 풍경, 눈부신 빛과 오묘한 색채의 향연

©윤영녀_설악산 국립공원 용아장성 가을



앞에서, 벅찬 감동과 환희를 온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은 무릎 꿇게 하는 숭고한 드라마였고, 발아래 흐르는 거대한 운해는 꿈결 같은 비단 폭포 같았으며, 그 위로 쏟아지는 빛과 색채의 향연은 태고의 산맥에 새겨진 신비로운 서사시였습니다. 숨 막히는 장엄함 앞에서 시간마저 잊은 채, 영원을 엿보는 찰나를 잡기 위해 온 힘을 다했습니다. 셔터를 누를 때마다, 삶의 희로애락이 담긴 환희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산은 역설적으로, 가장 엄정한 진실을 일깨워주었습니다. 황홀했던 절정은 잠시, 한 시침도 넘기지 못하고, 햇살 아래 운해는 흩어지고 색채는 야생화처럼 사라져갔습니다. 마법 같던 풍경은 어느새 담담한 일상

©윤영녀_지리산 국립공원 봄



으로 돌아오고, 그런 신기루 같은 모습이 순간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 인생 역시 허망함 속에 있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덧없음 속에서 깨달은 것은, 인생의 만상 또한 이 풍경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찬란한 기쁨이 피어나고, 빛나는 성취의 순간도 새벽 운해처럼 아름답게 피어났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 사라지는 찰나의 미학임을 알았습니다. 허망함을 느끼면서도, 그 소실과 변화 속에서 삶의 깊은 의미와, 새로운 빛을 향한 희망의 불씨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내 삶이 산을 닮아 거짓 없이, 유장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그 삶 속에서 그런 나 자신을 온전히 품고 싶었습니다. 사진이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밝히는 일이며, 그 빛을 따라 저라는 존재를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깨달음은 내 삶의 가장 깊은 행복이자 눈물나는 희열이었습니다. 이번 전시에 담긴 사진들은 단순한 산의 풍경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산을 오르며 만났던 순간들 중, 영혼을 울렸던 빛과 색, 그리고 운해의 파노라마를 최선을 다해 포착하려 했던 집념의 결정체입니다. 찰나의 절정 속에서 영원의 의미를 탐색하고, 사라져 가는 것들 속에서도 변치 않는 고유한 가치를 발견하고자 했던 깊은 사색의 여정을 담아냈습니다. 이 작품들이 최고라 감히 말할 수는 없을지라도, 지난 세월 모든 열정과 성심을 다한 결과물임을 여러분께 소박한 마음으로 전하고 싶습니다. 산은 오르면 반드시 내려와야 하듯, 성취와 소멸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유장함을 믿습니다.

©윤영녀_월출산 국립공원 천황봉 나리꽃



©윤영녀_백두산 서파 은하수



©윤영녀_계룡산 국립공원 삼불봉 봄



©윤은숙_Apple in Lightning, 2025, AI assisted photography, Midjourney V7, Gemini image generation, compositing & retouching, archival pigment print., 40x40cm



©윤은숙_Orange on a Cloud, 2025, AI assisted photography, Midjourney V7, Gemini image generation, compositing & retouching, archival pigment print., 40x40cm



©윤은숙_Banana on a Cloud, 2025, AI assisted photography, Midjourney V7, Gemini image generation, compositing & retouching, archival pigment print., 40x40cm

- 전시일시 2025년 11월 4일(화) ~ 11월 25일(화) (관람시간 12:00-18:00, 매주 월요일 휴관)
- 전시장소 하갤러리 (서울시 서초구 마방로 6길 8-45)
- 세미나 “사진가를 위한 AI 워크폴로” 2025년 11월 7일(금) 15:30
- 오프닝리셉션 2025년 11월 7일(금) 17:30
- 전시작가 윤은숙(010-2850-7363)

나는 2024년 초, 생성형 AI를 처음 접했다. 문장을 입력하면 이미지가 나오는 경험은 놀라움과 우려를 동시에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곧 생각이 바뀌었다. 오래전부터 구상했지만 여간상 제작하기 어려웠던 작업을 미리 시험해 보는 pre-production 도구로, 혹은 현실적으로 촬영이 불가능한 이미지를 구현하는 확장된 제작 도구로 AI를 쓸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다.

사진은 필름에서 디지털로, 다시 포토샵으로 이어지며 급격하게 변모해 왔다. 나는 포토샵에 늦게 적응하며 겪었던 시행착오를 떠올렸고, AI 만큼 주저하지 말자고 마음먹었다. 그렇게 시작된 첫 결과가 2024년 11

월의 초단편 AI 영화 <Peach of Summer>였다. 이어 2025년 5월 기획 전 <작은 것의 위대함>에서는 ‘부억도’ 시리즈를 변주한 정물 사진을, 9 월에는 <익지 않는 생선>(영상-사진)을 발표했다. AI 프로그램을 나에게 지도받은 분들과 함께 기획한 전시였다.

학계와 비평의 장에서는 아직 AI 이미지의 예술적 지위를 두고 논의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한 장의 이미지를 얻기까지 수많은 수정과 장시간의 시행착오가 필요하다는 것은 촬영 못지 않은 창작의 노동이 분명 하다 말할 수 있다. 새로운 툴이 쏟아지는 변화의 속도 속에서도, 내가 붙잡고자 한 것은 사진가로서의 의지와 결정이었다.

[윤은숙 개인전]
AI와 합작한 구름 위의 생명력
부억도-과일과 날씨(Fruit & Weather)

윤 은 숙(경기 광주)



©윤은숙_Pomegranate, Cloud & Rainbow, 2025, AI assisted photography ,Midjourney V7, Gemini image generation, compositing & retouching, archival pigment print., 40x40cm

하나의 생명이 싹터서 꽃이 피고 열매에 이르기까지 수 많은 진통을 경험한다.
과일 하나는 모두 그러한 과정을 겪었으니 경이롭고 아름답다.
AI의 도움을 받아 제작한 이번 작품은 부역도의 과일 에피소드의 확장판이다.



©윤은숙_Watermelon on Clouds, 2025, AI assisted photography ,Midjourney V7, Gemini image generation, compositing & retouching, archival pigment print, 40x40cm

이번 작업은 ‘부역도’의 ‘과일 에피소드’를 확장한 것이다. 나는 과일이 지닌 풍요와 생명력의 상징성과, 날씨가 내포한 기분과 상징을 은유적으로 결합해 보았다. 맑음·안개·폭풍·눈·오로라 등 다양한 기후를 무대로 과일의 질감을 극사실적으로 끌어올리면서도,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초현실적 장면을 구축한다. 구름 위의 과일, 비에 젖은 과육, 번개 속 반짝이는 물방울은 마그리트의 구름 모티프에서 받은 영감을 사진적으로 재해석하여 작업하였다.

30년 동안 필름·디지털·포토샵을 거쳐온 내게 AI는 두렵지만 매력적인 새로운 동료다. 이 작업은 생성형 AI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다만 이미지를 탄생시키는 최종 책임은 여전히 작가의 판단과 감각에 있다. 나는 이 동료와 함께, 사적인 일상을 다뤘던 ‘부역도’를 자연과 기후의 스케일로 확장해 보고자 한다.



©윤은숙_Apple on a Cloud, 2025, AI assisted photography ,Midjourney V7, Gemini image generation, compositing & retouching, archival pigment print, 40x40cm



©윤은숙_Peach on Ice, 2025, AI assisted photography ,Midjourney V7, Gemini image generation, compositing & retouching, archival pigment print, 40x40cm



©윤보상_어둠과 빛의 경계 #04

하늘 장막 열린다 희망이 솟는다 어둠과 빛의 경계

윤 보 상(대전)



©윤보상_어둠과 빛의 경계 #05



©윤보상_어둠과 빛의 경계 #01



©윤보상_어둠과 빛의 경계 #07



©윤보상_어둠과 빛의 경계 #08



©윤보상_어둠과 빛의 경계 #03



©윤보상_어둠과 빛의 경계 #10



©윤보상_어둠과 빛의 경계 #09

어둠이 있기에 빛은 더욱 찬란하고, 빛이 있기에 어둠은 더욱 깊어진다.
 이 작품들은 그 경계 위에 선 나의 응시이며, 침묵 속에서 피어나는 감정의 기록이다.
 나는 출근 빛과 어둠의 공존, 그 경계에 주목해 왔다.
 특히 밤의 시간은 고요함과 적막 속에서 감성과 상상력이 더욱 짙게 피어나는 순간이기에,
 나는 주로 낮보다는 밤을 선택해 사진작업을 이어간다.
 짙은 어둠 속에서도, 우리는 어김없이 빛을 찾는다.
 그것은 한 줄기 희망이기도 하고, 우리 존재가 스스로를 향해 건네는 질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날이 밝아오면 어둠은 물러가고,
 빛이 머무는 동안 어둠은 설 자리를 잃는다.
 과연, 빛과 어둠은 함께 머물 수 없는 것일까?
 공존은 불가능한 것일까?
 나는 그 해답을 찾기보다,
 그 물음 속에 오래 머무르고 싶다...

밤이 깊을수록 빛을 그리는 마음은 더 간절하다.
 흑암한 세상에 한줄기 빛 첫 태양이 광활한 어둠을 살라먹고 나올 때
 나는 하늘과 바다가 맞닿은 그 곳에 내 카메라의 초점을 맞춘다.



©윤보상_어둠과 빛의 경계 #06



©김평산_희구(希求)의 풍경#03



©김평산_희구(希求)의 풍경#02

렌즈에 담은 베트남, 그 일상과 나 희구(希求)의 풍경

그 삶 속에서 사진가는 자신을 발견한다.

김 평 산(중구)

희구(希求)는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나 무엇을 달성하고자 하는 열망을 뜻한다. 10년 넘는 시간동안 50여 차례 베트남의 여러 곳을 다니며 작품 촬영을 하였다. 처음 촬영할 당시만 해도 지금의 베트남보다 현대화 발전은 더뎠지만 인간애가 넘쳤으며 사진 촬영을 할 때 뷰파인더 속 사람들의 수줍은 미소와 순수함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

지난 8월 촬영은 건너 까이랑수산시장 작은 어촌의 사람들과 그들의 삶을 촬영하였다. 누군가는 나한테 왜 그렇게 베트남에 집착하는 것처럼

자주 촬영을 가느냐고 묻곤한다. 물론 나 역시 처음 베트남을 촬영시 아름다운 풍광 위주로 촬영을 하였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자주 가다보니 어느 순간, 베트남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였다.

지금처럼 우리나라의 현대화, 디지털화에서 더 나아가 4차 산업혁명 기술 융합화가 더 빠르게 진행될수록 다른 여타의 아시아 나라들과의 차이는 더 벌어질 것이다. 과연 이곳 건너에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이 사람들은 공감을 할까라는 생각이 든다. 지금 이곳 사람들은 내가 나가



©김평산_희구(希求)의 풍경#01



©김평산_희구(希求)의 풍경#04

발동기를 단 조각배를 띄워 아침을 여는 사람들,
베트남 어촌 풍광은 고요한 정적을 깨고
멀리 닭 울음소리와 공명한다.
그 곳의 삶을 포착하면서 나는 문득 내 삶을 되돌아보게 된다.

서 얼마나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까. 오늘은 고기를 얼마나 팔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시간이 흐르면 이곳도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많은 물고기를 잡고 팔아서 가족들에게 배부르게 먹고 가르칠 수 있기를 희망하지 않을까 싶다.

예전에 우리의 삶 역시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 결혼하고 배부르게 먹고, 자녀들을 가르치며 집안을 건사할 수 있는 것에 내 삶의 가치를 부여하곤 했다. 물론 지금의 삶도 그 연장선에 있긴 하지만 지금의 나는 내 행위에 대한 존재 가치 부여와 함께 나를 찾는데 집중하는 것이 내 삶이다. 하지만 이곳 건너 까이랑에서 마주친 베트남 소시민들의 삶을 앵글을 통해 바라보는 시선은 예전의 희구(希求)를 갈망하는 나를 보는 것 같다.

내일의 희망이 있는 삶을 꿈꾸며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나는 카메라에 담고자 이곳 베트남 사람들을 꿈속에서 만난다. 그리스 신화의 희망 여신인 엘피스(Elpis) 이야기처럼 희망은 고통이 동시에 수반된다. 삶 속에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를 그들의 삶을 바라보며 나의 희구(希求)를 찾아 내 삶에 집중하고자 한다.



©김평산_희구(希求)의 풍경#05



©김평산_희구(希求)의 풍경#06



©김평산_희구(希求)의 풍경#07



©김평산_희구(希求)의 풍경#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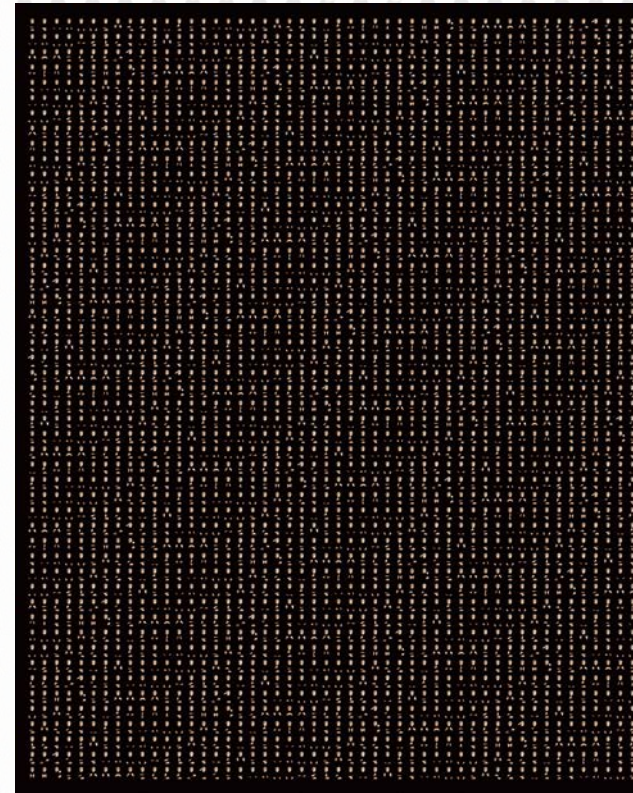
들리지 않아도 듣는다 아버지에 보내는 '손짓 말'

Aria_아리아

이 현 아(대구)



©이현아_Aria-아리아-알려류, 150x1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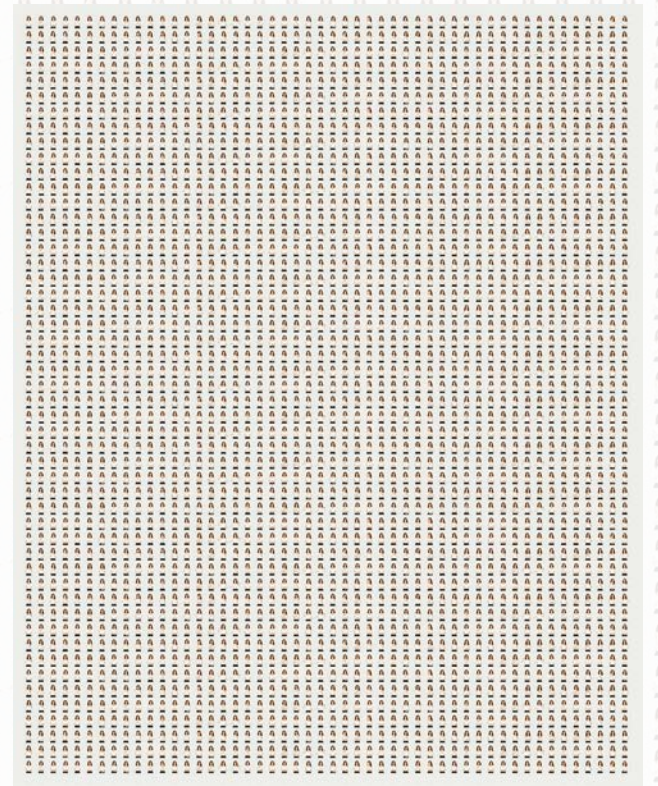


©이현아_Aria-아리아-당신은, 120x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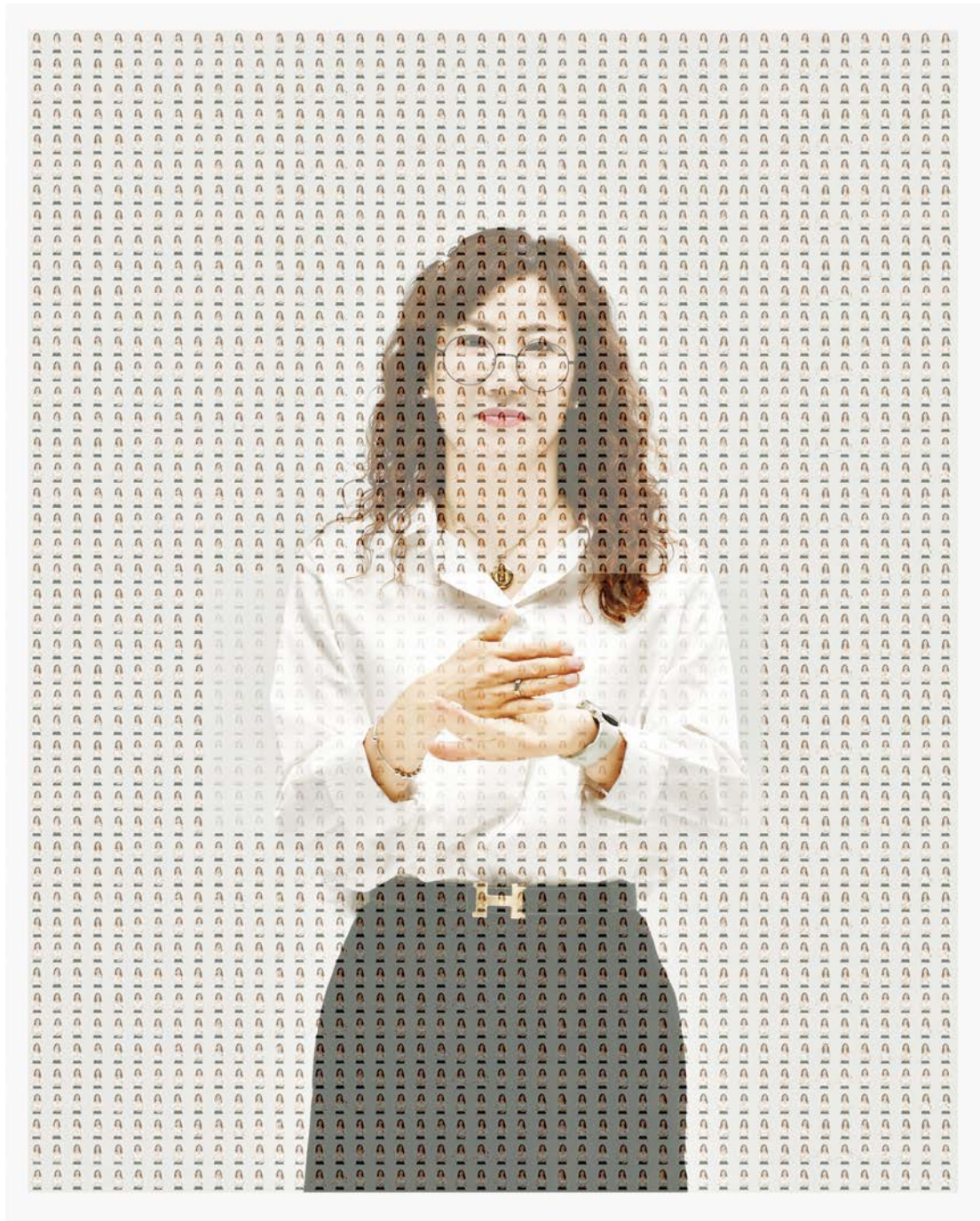
아버지의 청력 소실은 한 가족의 일상에 깊은 침묵을 드리웠다. 곳곳하던 허리는 세월의 무게에 굽어지고, 소리 없는 대화 속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아버지의 뒷모습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상실감과 아픔을 안겨주었다. 어느 날, 밥상 앞에 앉은 아버지의 고요한 모습에서 우리는 문득 깨닫게 된다. 이 순간마저도 언젠가는 기억 속으로 사라질 것이라는 사실을.

그때, 우리는 손끝으로 마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장난처럼, 놀이처럼 시작된 수어는 어느새 따뜻한 언어가 되어 서로를 이어주었다. 말이 필요 없는 대화, 손짓 하나로 주고받는 감정은 마치 소리 없는 오페라의 선율처럼 우리의 마음을 울렸다. 아버지의 잃어버렸던 웃음은 섬세한 손짓 속에서 다시 피어났고, 그 순간 손짓은, 우리의 '아리아'가 되었다.

「Aria_아리아」는 '수어'가 단순한 의사소통을 넘어 예술적이고 감정적인 표현의 수단임을 이야기한다. 손끝에서 시작된 언어는 침묵 속에 갇힌 이들의 목소리가 되었고, 소통의 벽을 허물며 우리 모두를 하나로 연결하는 노래가 되었다.



©이현아_Aria-아리아-고맙소, 120x150



©이현아_Aria-아리아-고맙소, 60x75

우리가 마음을 전하는 것, 소통이 어찌 목소리로만 이루어지겠는가?
눈빛 하나로 몸짓으로도 더 아름다운 교감이 가능하다.
청력 잃는 아버지에게 수어를 보낼 때 아버지의 환한 웃음은
소리없는 우리들의 '아리아' 처럼 아름답다.



©이현아_Aria-아리아-고맙소 1, 60x75

건강인이든 농아인이든, 언어의 차이를 넘어 생각과 문화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수어'는 이제 대한민국의 또 다른 국어로서 우리의 시야를 확장시키고,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며, 다름을 존중하는 연대의 도구로 자리 잡고 있다.

수어가 지닌 따뜻한 메시지—“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아름다운 세상 만들어요”—를 통해, 서로의 존재를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는 아름다운 공존의 가능성을 표현하고 싶었다.

손끝에서 피어나는 희망의 언어는 서로의 다름을 안아주고, 이 시대의 분열을 치유하는 선율이 되어 오늘도 조용히, 그러나 깊이 있게 울려 퍼진다. 이 아리아는 지금 이곳에서 우리 모두의 이야기로 함께 연주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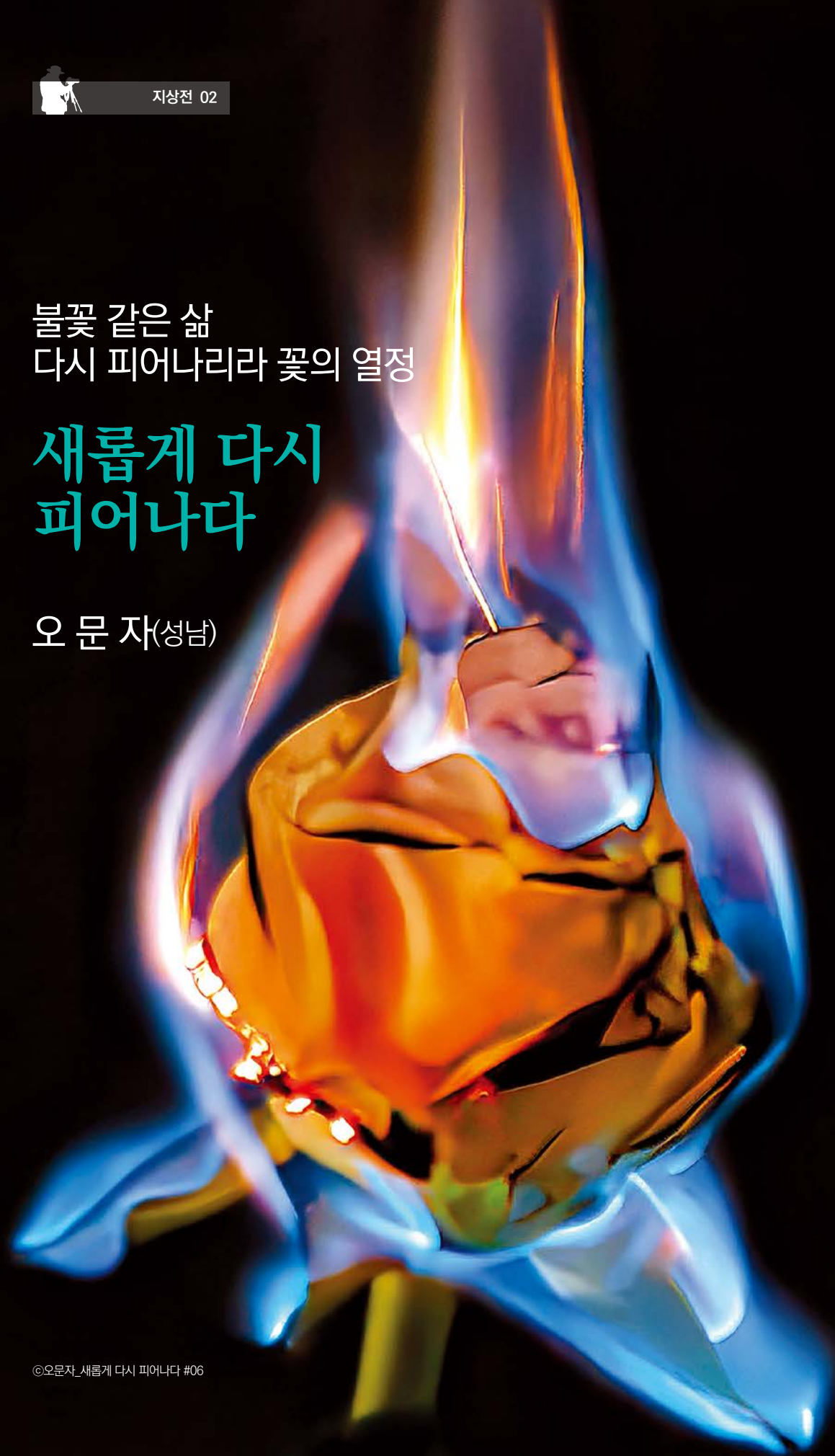
©이현아_Aria-아리아, 60x75



불꽃 같은 삶
다시 피어나리라 꽃의 열정

새롭게 다시 피어나다

오문자(성남)



©오문자_새롭게 다시 피어나다 #06



©오문자_새롭게 다시 피어나다 #01



©오문자_새롭게 다시 피어나다 #13



©오문자_새롭게 다시 피어나다 #03



©오문자_새롭게 다시 피어나다 #12

꽃은 매년 새롭게 태어나지만 필 때마다 더욱 아름답다.
식물의 삶에서 가장 화려하지만 그 화려함이 너무 짧아서
내 마음이 서운하다. 그러나 그 화려함이 너무 불꽃같은 삶의 순간은
세세년년 영원하다.



©오문자_새롭게 다시 피어나다 #10

꽃의 일생은 짧다.
 피었다 지기까지는 피우기 위해 쏟아온 시간들에 허무를 남긴다.
 꽃을 키우다 가끔 생각하는
 화양연화(花樣年華)

꽃과 여자는 닮았다.
 내 안에서 아직도 못다 한 꿈들이 꿈틀거리던 날..
 꽃으로 나를 만나려 나섰다.
 꽃의 순간적인 생명에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더니 꿈들이 불꽃으로 타오르며 다시 태어났다.

사소한 몸짓에 내면이 열리고 남겨진 열정이 불꽃이 되어 나를 반긴다.
 바람에 실려 살아 움직이는 불꽃의 춤사위.
 이 모든 순간은 우연과 열정의 교차로에서 꽃의 숨은 열망을 응축한 기록이다.



©오문자_새롭게 다시 피어나다 #11



©오문자_새롭게 다시 피어나다 #08

KYOTOGRAPHIE 2025

International Photography Festival V

교토그래피 2025 참여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세계 사진의 경향과 흐름을 고민해본다. - 편집장 노성진

영혼을 흔드는 아일랜드의 빛과 소리

Eamonn Doyle 에몬 도일



©아사노 타케시-KYOTOGRAPHIE 2025

Eamonn Doyle

에몬 도일

Curator : Nile Sweeney
Celenographer : Nile Sweeney
Place : Higashi Honganji Temple Entrance



©에몬 도일_캐서린의 편지. 2018



©Eamonn Doyle_K19. 2018_75.5X56.2cm
_Archival Pigment Print



©Eamonn Doyle_K36. 2018_75.5X56.2cm
_Archival Pigment Print



©Eamonn Doyle_K45. 2018_75.5X56.2cm
_Archival Pigment Print

2017년, Eamon의 어머니 Catherine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형 키아란은 1999년 서른세 살의 나이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고, 그 날부터 어머니는 시간의 구조 속에서 열린 상처에서 흘러나오는 슬픔에 계속 시달렸다. 키아란이 죽고 자신의 죽음 사이의 몇 년 동안 캐서린은 죽은 아들에게 수백 통의 편지를 썼다. Eamonn은 글자를 겹쳐 놓았다. 한때 슬픔에서 엮여졌던 생각의 실이 시간을 응축시키는 촘촘한 "질감"으로 다시 엮여 있었다. 결국 그는 "K" 시리즈 작업을 시작했다. 댄인 영혼(영혼)이 중력과 바람, 빛에 의해 굽혀 다른 세계의 풍경을 헤매는 모습을 담고 있다. 아일랜드 서부의 대서양 커넥타라와 어머니의 편지가 쓰여진 스페인 남서부. 대지에 부리를 내리는 바람과 빛은 그 형태를 깎고 찢어버리고, 때로는 흔들리며 이야기를 엮는다. 이 작품은 1951년에 녹음된 죽은 자를 위한 아일랜드 전통 애도

"Keen"의 귀중한 음원을 통합한다. 뮤지션 데이비드 도노호는 이 음원을 사용하여 이 앨범의 핵심 사운드를 구축했다. 또한 "K"는 "대서양 아일랜드인"의 유령, 코네마라 바다를 건넌 사람들, 이베리아 반도와 북아프리카 사이의 먼 시대의 문화적 연결도 포함한다. 여기 히가시 혼간지 사원의 정문에서 "K"는 다시 천으로, 즉 작품이 탄생한 "질감"으로 돌아간다. 캐서린의 편지는 끝없는 기도가를 맡긴 '킨의 두루마리'로 늘어서 있으며, 그들의 목소리는 조용히 발산된다. 안으로 들어서면 큰 실크 프린트로 공간에 'K'의 이미지가 나타납니다. 한때 그 안에 싸여 있던 우뚝 솟은 정령의 모습을 반영하고 덧없는 로브처럼 흔들린다. 마치 끊어진 생명의 실로 엮인 것 같고, 우리 자신의 덧없는 무게와 가벼움이 그 섬유에 반영되어 있다.

글_Nile Sweeney

KYOTOGRAPHIE 2025

International Photography Festival V



©Eamonn Doyle_CAVENDISH ROW. 2019_60X80cm_Archival Pigment Print

1969년 더블린에서 태어난 Doyle은 1987년부터 1991년까지 Dun Laoghaire College of Art & Design에서 회화와 사진을 공부했다. 대학을 졸업한 후 그는 "세계 사진작가"가 되는 것에 대한 생각을 추구하며 전 세계를 여행하기 시작했다. 그는 곧 아일랜드로 돌아와 한때 가족의 사업장이었던 건물인 147 Parnell Street, Dublin 1로 이사했다. 이 건물은 예술가, 영화 제작자 및 사진작가를 위한 스튜디오의 허브가 되었다. 영화 제작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그들은 녹음 스튜디오를 건물 지하에 설치했다. 그들은 스튜디오에서 지역 밴드를 녹음하기 시작했고, 이는 Doyle의 첫 번째 음반사인 Dead Elvis의 출범으로 빠르게 진행되었다. 음악에 대한 평생의 열정, 건물 내 운영 중인 녹음 스튜디오, 신기술의 가능성으로 Doyle은 곧 전자 음악에 대한 관심을 넓히기 시작했다. 1994년에 그는 매우 영향력 있는 음반사인 D1 Recordings를 설립했으며 그 이후로 일어난 많은 일의 원동력이 되었다.

Eamonn Doyle은 대학에서 디자이너이자 아티스트인 Niall Sweeney를 만났고, D1 Recordings의 설립을 통해 레이블과 관련 이벤트 및 페

스티벌의 디자인을 함께 작업하고 나중에 출판물, 전시회 및 영화에서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는 평생의 관계를 시작했다. 그 후 20년 동안 D1은 많은 국내외 아티스트와 함께 일렉트로닉 음악을 녹음 및 출판했으며 그 결과 이번에는 카메라 대신 비닐 레코드를 손에 들고 전 세계를 여행했다. Doyle은 레이블을 통해 녹음 아티스트 중 한 명으로 작곡가이자 음악가인 David Donohoe를 만났고, 이러한 관계는 많은 음악 협업을 불러일으켰다. 그들은 함께 일련의 라이브 공연을 통해 어쿠스틱 및 디지털 전통과 관행을 탐구하는 프로젝트인 String Machine, 2008-2013을 제작했다. 2002년 Eamonn은 2009년까지 진행된 큰 성공을 거둔 더블린 일렉트로닉 아트 페스티벌인 DEAF를 설립했다.

Doyle은 2008년에 사진으로 돌아왔고 그의 데뷔 사진집은 2014년 3월에 출판되었다. 그의 작품 대부분은 지난 20년 동안 살았던 더블린 도심과 그 주변에서 제작되며, 최고의 사진 중 일부는 문앞에서 찍을 수 있음을 증명한다. Doyle의 i 시리즈는 일상 생활을 살아가는 개인의 아름답게 잘린 초상화에 대한 연구이다. 그들 대부분은 우리 존재의 덧없음에



©Eamonn Doyle_K38. 2018_75.5X56.2cm_Archival Pigment Print

대한 강한 감각을 이미지에 불어넣는 노인이다. 그들의 많은 경험들, 즉 기쁨과 슬픔을 얼굴에 새긴다. 따라서 이것은 암묵적으로 사진 자체에 대한 명상이기도 하다. 찰나의 순간과 완전한 이야기를 동시에 포착하는 능력이다. Doyle은 거리 사진에서 일반적으로 흔히 볼 수 있는 쓰레기와 도시 가구가 없기 때문에 이미지에 으스스한 순수함을 부여한다.

이 무렵, 더블린 도심 정문 바로 밖 거리에서 도일은 다시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문학, 특히 사무엘 베케트에 대한 그의 관심과 우리 시대의 문화적 발전과 사회 정치는 모두 음악에 대한 그의 경험과 결합되어 그의 사진을 통해 더블린 거리에 울려 퍼지는 것 같다. 2014년에 그는 "더블린 3부작" 중 첫 번째 책인 i부터 D1까지 자체 출판했다. Martin Parr가 이 책이 "10년 동안 본 최고의 거리 사진집"이라고 유명하게 발표했을 때 모든 것이 한 단계 더 발전했다. 같은 해에 Doyle은 런던의 Michael Hoppen Gallery에 예술가 중 한 명으로 영입되었다. 1년 후 똑같이 성공적인 ON이 뒤따랐다. 그 직후 Rencontres d'Arles 2016에 전시 초대를 받았고, 그 결과 몰입형 설치물과 책 End.가 탄생했으며, David는 이를 위



©Eamonn Doyle_K35. 2018_75X56.2cm_Archival Pigment Print

해 상호 연결된 음악 작품 모음곡을 작곡했다. 출판과 전시 모두 Doyle, Sweeney 및 Donohoe 간의 첫 번째 완전한 협업 대규모 프로젝트가 될 것이며 계속해서 협업과 우정의 모델이 될 것이다.

국제적인 찬사, 수집 및 전시회가 뒤따랐다. 2017년 1980년대 밥 쿤의 아틀란티스 영화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 아이디어로 2017년 새로운 작업을 계획하던 중 도일의 어머니가 사망했다. 이로 인해 아일랜드 서부 해안에서 촬영되고 아일랜드 전통 애도곡을 기반으로 한 Donohoe의 작곡과 함께 새로운 작품 및 출판물인 K, 2018이 탄생했다. 동시에 Fundación MAPFRE는 2019년 마드리드 전시회 초청을 연장했다. 이것은 결국 K로 발전한 모든 생각과 조사를 연결하게 되었고, Doyle은 2018년 스페인 시리즈를 촬영하기 위해 스페인의 Extremadura로 여행했다. 또한 2018년에는 ThisIsPopBaby와 Thames & Hudson이 9개의 스크린으로 구성된 영화 작품과 책인 Made In Dublin을 동시에 의뢰했으며 아일랜드 작가 Kevin Barry가 네 번째 협력자가 되었다. Made In Dublin은 Photo London 2019에 참여했다.



〈페트라 콜린스: fangirl〉, Becoming Petra, 2025, courtesy of DAELIM MUSEUM

하이틴 문화의 아이콘이 온다 페트라 콜린스 : fangirl

글·사진제공 - 김재훈(전시 컨설턴트, 프린트 디렉터)

대림미술관에서는 재단 설립 30주년을 맞이하여 기획된 〈페트라 콜린스: fangirl〉전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개최된다. 이 전시는 국제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셀럽이자 멀티 크리에이터인 ‘페트라 콜린스 (PETRA COLLINS)’가 전 세계 최초로 선보이는 개인전으로, 사진, 영상, 설치, 패션, 매거진, 아카이브 등 총 500여 점의 작품을 통해 그녀의 정체성과 시선, 그리고 확장된 세계관을 단계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



〈페트라 콜린스: fangirl〉, Becoming Petra, 2025, courtesy of DAELIM MUSEUM

록 구성되었다. 대림미술관 전체 층을 활용한 전시 공간에는, 10대 시절 독학으로 사진을 시작한 초기 작업부터, 패션 포토그래퍼, 필름 디렉터, 브랜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등 아티스트로 영역을 넓혀온 현재까지 작가의 내면과 창작 세계를 담아낸 다양한 프로젝트 작품이 소개된다. 15살에 독학으로 사진을 시작해 자신의 사진과 이야기를 소셜 네트워크



〈페트라 콜린스: fangirl〉, The Gaze, 2025, courtesy of DAELIM MUSEUM

크를 통해 공유하며 수많은 ‘팬걸 (FANGIRL)’의 공감과 지지를 받는 작가로 성장하고, 여성의 자기표현을 주제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청춘의 복잡한 삶과 그들의 정서를 탐구해온 작가는 하이틴문화와 ‘걸리시(Girlish)’를 상징하는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으며, 아날로그 필름의 결함이나 기술적 제약을 자신만의 고유한 개성과 스타일로 정립하며 예술과 상업의 경계를 넘나드는 독창적인 시각 언어를 구축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감성과 시선, 정체성과 감정,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경계를 넘나들며, ‘요즘 감성’의 원형이 된 페트라 콜린스의 예술 세계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나 자신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해 온 그녀의 입체적인 세계관을 소개함으로써, 오늘날 ‘크리에이터’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전시가 될 것이다.

전시장 2층에 위치한 첫 번째 섹션, ‘비커밍 페트라 (BECOMING PETRA)’는 예술가로서 정체성을 모색하며 자기표현을 시작한 작가의 초기 사진 작업으로 구성된다. 주변 인물들을 통해 사춘기의 불안정한 감정, 정체성의 혼란을 가감 없이 담아낸 사진 시리즈 〈셀피 (Selfie)〉와 〈더 틴에이지 게이즈 (The Teenage Gaze)〉, 유년 시절을 향한 그리움을 담은 시리즈 〈커밍 오브 에이지 (Coming of Age)〉를 통해 드러나는 수평적이고 친밀한 그의 시선은 보는 이로 하여금 사진 속 인물과 교감하고, 청춘의 불완전한 정서에 공감하게 만든다. 이어지는 3층 공간의 두 번째 섹션, ‘시선 (THE GAZE)’은 주변 인물을 향하던 시선을 자기 내면으로 돌리고, 소녀에서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겪은 정체성의 변화와 섬세하고 취약한 감정을 바탕으로 확장된 그녀만의 세계관이 담긴 작업을 소개한다. 〈24시간 사이코 (24hr Psycho)〉, 〈바



©Petra Collins, Baron, Anna Double, 2019



©Petra Collins, Baron, Why be you when you can be me., 2019

론 (Baron)), 〈페어리 테일즈 (Fairy Tales)〉, 〈아이돌 (Idols)〉 각 시리즈들은 신체적 변화와 정체성에 대한 사회적 시선을 주제로 한 강렬한 연출 사진으로, 관람객의 또 다른 시선을 유도하는 연극적 설치와 함께 제시된다. 마지막 섹션, '뉴 노스탤지어 (NEW NOSTALGIA)'는 작가의 시각적 미감을 집약한 공간이다. 몽환적인 색감과 노이즈 가득한 이미지를 통해 하이틴 문화, 걸리시 감성, 동시대 정서를 대표하는 비주얼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한 페트라 콜린스의 상업 광고, 패션 매거진, 브랜드 필름, 뮤직비디오, 패션 브랜드 등 다양한 형태의 작품을 만나 볼 수 있다. 곳곳에 배치된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집' 구조물은 작가의 감각과 기억, 영감, 시각적 상상력을 반영한 파편들이자, 그의 예술 세계를 구성하는 단위로 자리한다. 전시는 '집 속의 집'이라는 물리적 형태를 통해 그의 비전을 구현함으로써, 작가의 예술 세계를 거니는 듯한 감각을 환기시킨다.



©Petra Collins, Fairy Tales, Spikes, 2020-2021



©Petra Collins, The Teenage Gaze, Footsteps in Highschool, 2010-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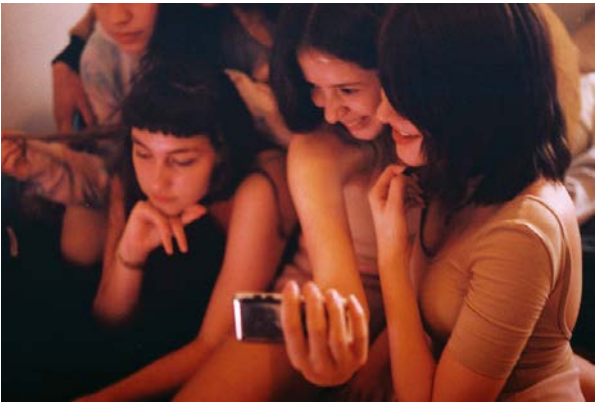
©Petra Collins, Fairy Tales, Realization, 2020-2021



©Petra Collins, Coming of Age, Anna and Kathleen on Clarinda, 2017



©Petra Collins, Baron, You are in Danger, 2019



©Petra Collins, Selfie, Untitled, 2013

블랙핑크, 뉴진스, 빌리 아일리시... 혹여라도 이 이름들이 낯설다면, 애플, 구찌, 아디다스, 나이키 등의 이름은 익숙할 것이다. 모두 페트라 콜린스와 협업한 이들의 이름이다. 지금 시대에서 대중문화 소비의 중심에 있는 세대들에게 소위 '핫'하게 보이고 싶은 이들이 그녀를 찾는다는 얘기다. 패션사진작가들의 정통적인 코스와 달리 개인적으로 SNS를 통해 스스로를 표현하고 증명함으로써 자리매김해온 페트라 콜린스의 과정은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기존의 정체성을 지켜가면서도 계속 변화하고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며 밀레니얼 세대와 Z 세대 모두에게 사랑받는 아티스트로 자리잡았기 때문이다. 자신의 방식과 작업을 꾸준히 이어가면서 변함없이 지켜나가는 것이 작가정신이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페트라 콜린스: fangirl〉, The Gaze, 2025, courtesy of DAELIM MUSEUM

이는 자칫 방만함의 변명이 되거나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버리기 쉽다. 그 때문에 편협한 작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탓하는 모습을 많이 보기도 했다. 넓은 지식적 감성적 바탕에서 치밀하게 교집합을 찾아내고 그 부분을 깊게 탐구하는 것이 가치있는 것이지, 스스로 정한 프레임 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깊게 파 보아 자기가 갇혀 있을 우물 하나를 만들 뿐이다. “살기 위해, 성공한 예술가가 되기 위해서다. 끊임없이 변화하기 위해선 스스로에게 도전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정체될 수밖에 없고, 그건 살아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보그의 인터뷰글에 게시되었던 그녀의 대답이 이 전시와 안내글에 관심을 가졌던 사진가 및 예비 사진가들에게 공감 또는 반성이 되기를 바라며, 전시를 볼 기회가 없다면 페트라 콜린스, 엘리자베타 포로디나(Elizaveta Porodina) 같은 젊은 세대들에게 환호받고 있는 이들의 홈페이지를 통해 다른 세대의 감정들도 찾아 느껴보면서 스스로 감성과 표현의 폭을 넓힐 수 있기를 바란다.



〈페트라 콜린스: fangirl〉, The Gaze, 2025, courtesy of DAELIM MUSEUM



구매상담
ID: 신지스튜디오클럽
010-2253-2786

별칭인 사진가
지신적다

SINJI
studioclub

(주)신지스튜디오클럽
사진가를 위한 폐쇄형 인증제 쇼핑몰

포토프린터

EPSON **Canon**
EXCEED YOUR VISION

미니, 배터리 휴대용, A4무한정품, A4포토복합기
A3 전문가용 포토프린터, A2 ~ 64인치 대형

포토페이퍼, 정품잉크

EPSON **Canon** **SINJI**
EXCEED YOUR VISION studioclub

대여 프로그램
축제, 행사, 무상대여 / 02)790-1310

실적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지정 우수업체



전국 스튜디오 8,000여 개



전국 예술학부 1,000여학과 납품

보았노라 찍었노라 지배하노라 카메라 권력 시대

글 사진제공_최승언



드론 카메라. 더 잘 관찰하기 위한 인류의 꿈의 결과물이다

“Veni, vidi, vici —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고대 로마의 영웅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폰투스 전투에서 남긴 이 짧은 문장은 인류사의 본질을 압축한다. 인류의 역사는 곧 전쟁의 역사라 보아도 틀림이 없을 정도로 전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전쟁에서는 정보를 가진 자가 승리하기 마련이었다. 그러므로 인류의 역사는 정확한 정보를 가진 자, 즉 보는 자가 승리하는 역사였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했듯, 무작정 싸우는 자보다 먼저 보는 자가 승리했고, 기록하는 자가 역사를 지배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전쟁에서 승패를 가르는 것은 상대방에게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 그리고 상대방을 내가 볼 수 있느냐, 없느냐가 기준이 된다.

위장하여 적에게 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망원경을 만들어 적을 확인하는 것— 시각 정보전에서 우위를 잡아야 전쟁 승리를 담보한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적이 언제 움직이는가, 지휘관이 어디로 병력을 배치하는가, 이 모든 것을 ‘먼저 보는 자’가 전쟁의 주도권을 쥐었다.



카메라 대중화 시대. 평범한 이들이 권력을 갖게 되었다



방송중인 유튜브. 카메라 대중화 시대가 열리면서 권력의 판도가 바뀐다

중세시대 전쟁에서도 빠르고 정확한 정보가 전략적 자산이었다. 전령이 늦으면 도시가 함락되고, 보고가 왜곡되면 전투는 패배했다. 결국 인류 역사에서 전쟁의 승부는 누가 먼저, 얼마나 정확히 보았는가의 문제였다.

무엇으로 적의 동태를 파악할까? 당연히 육안이었다. 적진에 들어가 눈으로 본 것을 보고하는 첩보병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다. 이들이 더 잘 보기 위해 제작한 것이 렌즈와 망원경이고, 본 것을 명확히 기록한 것이 카메라다.

최근 등장한 드론은 현대전의 개념을 바꾸어 놓았다. 드론은 적진에 들어가 적의 동태를 보고 판단하고 공격하는 방식— 즉, 전쟁에서 승리하는 가장 충실한 무기다.

드론에 달린 카메라는 최첨단 기자재이지만, 카메라가 발명되기 이전에는 첩보전에 화가(畫家)가 투입되었다.

『삼국지』에서 제갈량이 아군이 적군과 대치한 산세와 포진을 그려 보내라 명령하는데, 이때도 화공이 지형지물을 그려 보내는 내용이 나온다.

조선에서 일본으로 가는 통신사나 청으로 가는 연경사들 중에는 화공이 포함되어 있었다. 평화시에도 언제 적이 될지 모르는 이웃 국가들의 동태를 정확히 보고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첩보 활동을 했던 셈이다.

19세기 말, 카메라의 등장은 그림을 더 잘 그리려는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더 잘 보고, 더 정확히 기록하려는 인간의 욕구를 충족하려는 발로였다.

크림전쟁(1853~1856)에서는 영국군이 처음으로 사진을 이용해 전장의 지형과 포진을 기록했다. 이때부터 카메라는 더 이상 예술의 도구가 아니었다. 전장의 눈, 즉 첩보의 핵심으로 카메라가 발전하기 시작한 시점이었다.



고고도 정찰기. 하늘에서 적의 동태를 감시한다



위장 저격수. 나를 감추고 적을 관찰하기에 최적화된 병기다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자, 카메라는 하늘로 올라갔다. 정찰기가 찍어온 수천 장의 항공사진이 적의 참호 위치를 밝혀내고, 그 데이터가 포격 좌표로 변환되었다. ‘먼저 본 자’가 ‘먼저 쏘아’ 이기게 되자, 이제 전쟁은 좋은 렌즈, 좋은 카메라 개발 전쟁으로 치달았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에서 카메라는 완전히 전략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 첩보원들이 라이터, 단추, 담배갑 속에 숨겨진 초소형 카메라로 비밀 문서를 촬영했다. 한 장의 사진이 전선보다 무서운 무기가 되었다.

냉전 시대에는 이 ‘보는 기술’이 하늘로 올라갔다. 미국의 U-2 정찰기와 소련의 스파이 위성은 서로의 영토를 촬영했다.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에서 전쟁을 멈춘 것도 결국 한 장의 항공사진이었다. 촬영된 사진을 분석해 소련이 쿠바에 핵미사일을 배치한 사실을 밝혀냈고, 당시 케네디 대통령은 해상봉쇄를 통해 소련의

미사일 기지 철수를 이끌어냈다.

렌즈는 총보다 강했고, 필름은 탄환보다 정확했다.

보이지 않는 곳, 곧 정보가 미치지 않는 곳은 통치할 수 없다. 눈이 닿는 곳까지 권력이 미치고, 정보를 가진 자가 역사를 쓰게 된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는 ‘비밀정보부’를 두어 가톨릭 세력을 사전에 차단했고, 그 첩보망 덕분에 스페인 무적함대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오늘날 카메라는 대중에게 보급되어 있다.

카메라를 가진 대중이 권력을 가진 시대로 접어들면서 스마트폰이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첩보 장비가 되었다. 유튜브에 뜬 한 장의 사진이 부정부패를 밝혀내고, 짧은 영상 하나가 정권을 무너뜨리며 여론을 지배한다.



포탄을 투하하려는 드론



영화 스카이폴의 첩보원



적을 알고 싸워야 이긴다. 사진은 첩보원 이미지

그러나 보는 힘이 곧 통제의 힘이 되기도 한다. 권력이 카메라를 쥐면 감시는 일상이 되고, 대중이 카메라를 쥐면 권력은 투명성을 강요 받는다. 보는 자와 보이는 자의 위치가 하루아침에 뒤바뀌는 시대—

이제 카메라는 자유와 억압의 경계를 동시에 품은 양날의 칼이 되었다. 진실을 드러내는 도구이자, 때로는 거짓을 포장하는 도구이기도 하다. 따라서 ‘보는 것’은 단순한 시각 행위가 아니라, 무엇을 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로 확장된다.

디지털 시대의 전쟁 양상 또한 카메라가 바꾸고 있다. 이제 전쟁은 ‘보는 속도’의 싸움이다. 누가 먼저 영상을 확보해 분석하며 세상에 보여주느냐에 따라 승패가 결정된다.

AI와 위성, CCTV, 드론이 결합된 오늘의 카메라는 단순한 시각 도구가 아니라 예측의 무기로 진화했다. ‘현재’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계산하기 시작했다.

카이사르가 “보았노라” 한 것은 단순히 관찰을 표현한 말이 아니다. 그것은 정보를 장악했음을 과시하는 선언이었다. 역사는 언제나 이긴 자의 시선으로 기록된다. 그 이긴 자는 본 자, 즉 정보를 가진 자였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그 정보를 가진 자, 즉 보는 자는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전쟁에서 승리한 자가 패한 자를 통치할 수 있게 된다.

전쟁은 변했지만, 그 본질은 같다. 인류의 역사는 여전히 싸우고, 보고, 이기는 자들의 이야기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순간, 카메라의 렌즈는 역사의 눈으로 기록하고 있다.

울산광역시장상	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상	가) 대한민국사지대저 초대·초청자가 이주의 거 - 승 인
---------	---------------	---------------------------------

November 2025 HANKOOKSAJIN 95

9) 입회점수 인정강좌 승인의 건

번호	강 사	자격번호	기관명	지 역	강 좌 명	시 수
1	권병길	제2023-지도37 04호	김제시 평생학습관	김제	사진촬영 중급과정	16주/32시간
2	김유준	제2025-0871호	부산예술회관	부산	사진아카데미(초급)	15주/34시간
			좌1동행정복지센터	부산	디지털사진반(초급)	24주/48시간
				부산	디지털사진반(심화)	23주/48시간
3	배선태	제2021-0147호	금천문화재단 만천명월예술인가	금천	창작반 (입문/기초)	15주/34시간
4	연도흠	제2025-47 045호	화성 문화원	화성	화성문화원 사진반	15주/30시간
5	오원석	제2025-47 002호	대전광역시교육청 평생학습관	대전	재능기부 사진교실	17주/32시간
			대전광역시교육청 평생학습관	대전	재능기부 스마트폰 활용 사진예술반	17주/32시간
6	이덕만	제2021-0167호	한세대학교	군포	디지털사진작가 양성과정	15주/45시간
7	이명수	제2021-0168호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광주	포토아티스트(사진예술)	15주/45시간
8	이태연	제2025-47 016호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광주	사진 촬영의 스마트한 변화(기초반)	15주/45시간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광주	사진 촬영의 스마트한 변화(예술반)	15주/45시간

10) 기타의 건

- ① 제10회 대한민국사진축전 참여작가 모집
- ② AI 이미지 콘테스트 / 청소년 사진제 홍보 독려
- ③ 장학생 선발 공고
- ④ 징계확정 공고 - 남원지부 이수민 : 정권 3년 (재심미신청, 2025년 2월 3일 확정)
- 남원지부 이윤모 : 정권 1년 (재심미신청 2025년 1월 24일 확정)

안동사건 관련 사실관계 안내 및 후속조치

이번 안동 관련 사건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왜곡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이에 정확한 사실관계 및 후속 조치에 대해 회원님들께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사건은 ‘공모전 부정 의혹’과 ‘지부 보조금 유용 의혹’ 총 2건입니다.

1) 공모전 부정 의혹 관련 사실관계

먼저 공모전 관련한 건은 진정이 있기 몇 개월 전 지부 자체적으로 문제가 되어 당시 지부장이던 권○○ 회원이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조건으로 마무리했던 건입니다. 그러나 작년 11월 초 강○○, 김○○, 이○○, 조○○ 회원이 입장을 바꿔서 안동관광사진공모전 비리 의혹과 관련하여 오○○, 권○○ 회원을 진정했던 사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협회에 피진정인 오○○ 회원이 막강한 영향력 때문에 봐줬다는 잘못된 사실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진정인들은 오○○ 회원이 공모전 상권 관련 청탁을 카톡을 통해 보냈고, 이와 거의 유사한 결과가 나온 것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윤리조정위원회는 오○○의 청탁이 심사결과로 반영되도록 ‘실제적 행위’가 이루어진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하기에 이 카톡을 받은자를 조사하기 위한 추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두 차례 공문과 여러 번의 연락에도 진정인들은 오○○ 으로부터 카톡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사건은 증거불충분 처리된 것입니다. 피진정인 권○○에 대한 타인에 대한 파일 양도 역시 당사자가 부인한 상황에서 추

가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아 증거 불충분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또한 청도 공모전 관련한 진정의 경우 협회 징계규정 제2조 ‘타인에 대한 진정은 당사자 자격이 확인되어야 한다’에 따라 고발형식의 당사자 자격이 없는 건에 대해선 조사할 수 없기에 진정이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협회나 위원회는 강제 수사권을 가지지 않기에 피진정인들이 전면 부인하는 상황에서 추가 증거 없이는 조사 진행이 어렵기에 진정인이 가지고 있는 증거를 추가 제출해달라 요구했으나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피진정인과 친분이 깊은 타 지부의 김○○ 회원이 해당 건을 안동시로 민원을 넣어 시에서는 경찰서로 수사를 의뢰하게 되었고, 언론 사까지 제보하여 이번 방송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해당건은 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죄 있는 사람은 징계를 안 받고 죄 없는 진정인 김○○ 회원이 오히려 정권 2년 징계를 받았다’며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습니다. 김○○ 회원이 징계를 받게 된 것은 아래 알려드릴 지부 보조금 유용 의혹건 조사에 따른 결과입니다.

2) 지부 보조금 유용 의혹

해당 건은 권○○ 회원이 피진정인 강○○, 김○○, 권○○, 윤○○ 등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안동지부 명의로 ‘사라져 가는 것들의 재조명’ 이란 사업을 신청하여 안동시에서 3년간 총 5천 9백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수령 하였고, 지부 승인이나 보고 절차 없이 강○○, 김○○ 회원이 주축이 되어 사적 이득을 편취 하였다는 의혹에 관한 진정입니다.

조사 결과 안동지부 총회 등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부의 결산에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몇 명만 인건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고, 작품집을 강○○ 회원의 부인이 운영하는 인쇄소에 맡겼습니다. 단순한 한해의 실수가 아닌 3년간 지속된 고의성과 지속성이 확인되었습니다.

3년간 해당 보조금 사업의 집행 내역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① 20년 1,900만원 : 인건비 1,200만원 (4인),
도록비 700만원 (강○○ 회원 부인 업체)
- ② 21년 2,000만원 : 인건비 1,200만원 (4인),
도록비 800만원 (강○○ 회원 부인 업체)
- ③ 22년 2,000만원 : 인건비 1,200만원 (4인),
도록비 800만원 (강○○ 회원 부인 업체)

조사결과 김○○ 회원은 사업 추진을 직접 지시하고 승인 절차 무시, 사업 도록에 총괄지휘자로 등재되었고 내부 규정 위반 및 협회 이해에 반하는 활동으로 정권 2년을 받게 되었습니다. 윤○○ 회원의 경우 사업 관련 문서 작성·제출 주도, 서명 이미지 및 직인 무단 사용, 문서위조, 공무집행방해, 보조금법 위반 등 형사범죄 성립 가능성 등을 감안

하여 정권 4년 징계 되었습니다.

21년, 22년 당시 지부장인 권○○ 회원은 위조된 문서 사실을 사후에 인지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정권 3개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이사회에선 사업에 직접 참여하거나 이익을 전혀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경고조치 하였습니다. 강○○ 회원은 3년간 인건비 수령에 부인 업체에서 작품집까지 제작을 한 사실이 있으나, 본인은 일을 의뢰받아 진행했을 뿐이라는 주장으로 인해 혐의 입증 불가하여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처리 하였습니다.

이 건의 경우 피해 금액과 혐의가 매우 중대하기에 협회에서는 내부적으로 종결하고자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일파만파 커지는 상황에서 진상조사위원회는 25년 9월 24일(수) 안동지부를 방문하여 회원들에게 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을 구한 결과 해당 보조금 유용 의혹에 대해서 직접 고발 조치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당시 현장에서 20년에 사업을 참여한 것으로 결산서에 명시된 유○○ 회원은 자신은 명의만 빌려줬고 입금된 약 3백만 원 정도 되는 돈을 김○○ 회원 부인에게 보냈고, 억울하다며 강력히 항의하였습니다. 이에 형사 고발 시 인건비 수령자들이 진짜로 일을 하고 인건비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달라는 고발 취지도 추가할 예정입니다.

위의 내용은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사실 확인과 반론이 있으신 경우 협회로 보내주시면 성심껏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결론 및 향후 조치사항

이미 고발된 공모전 건은 수사 결과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며, 아직 고발하지 않은 보조금 관련 사안에 대해서도 협회 차원에서 수사 기관에 고발하여 철저한 수사를 요청할 것입니다. 아울러 안동시에 모든 문제를 상세히 보고하고, 최종 유죄가 인정될 경우 지부 폐쇄 및 손해배상 청구를 포함한 민·형사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방침입니다.

또한,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협회를 비방하는 내용을 다수가 모인 온라인 공간에 게시한 회원들에 대해서도 윤리조정위원회에 사건을 이첩하여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민·형사상 법적 조치까지 강력히 검토함으로써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불미스러운 일로 회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집행부로서 대단히 송구합니다. 협회는 이번 계기를 통해 오랜 관행과 현실적 타협이란 핑계로 보이지만 않게 덮여주었던 치부를 확실히 드러내고,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련 결과와 후속 조치는 계속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 이향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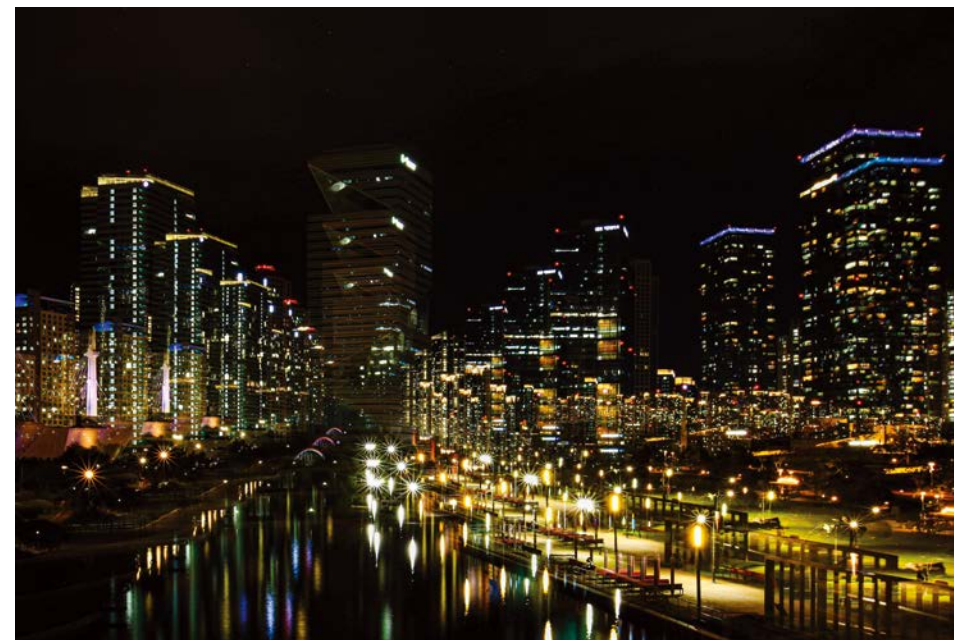
꽃사진분과위원회 세미나 및 촬영회

라이트 페인팅, 송도 야경 속으로...



지난 9월 13일 송도 센트럴파크에서 꽃사진분과위원회 (위원장 이연화) 세미나 및 촬영회를 개최하였다. 늦은 시간임에도 조건수 고문과 최복수 이사가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셨으며, 많은 회원들과 사진 동호인들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1부 순서로 윤슬 사진촬영연구소 김영훈 소장의 라이트 페인팅 촬영에 관한 설명과 촬영기법에 대한 강의를 있었으며, 1부 강의가 끝나고 날이 어두워지길 기다리며 잠시 휴식 후 이어진 2부 촬영에서는 송도의 아름다운 야경을 배경으로 진행된 라이트 페인팅을 촬영하며 한 컷 한 컷 완성되는 작품 속 아름다움에 회원들의 감탄사가 이어졌으며, 촬영 장소를 이동해 송도 야경과 모델이 참여한 라이트 페인팅 촬영으로 촬영회의 백미를 장식하였다.

라이트 페인팅은 어둠 속에서 빛의 흐름을 그려내며 퍼포먼스로 표현되는 순간을 포착하는 독특한 촬영기법으로,



한 번의 촬영마다 다시는 재현할 수 없는 '빛의 꽃'을 만들어내는 창의적인 사진 촬영이었다. 셔터가 열리고 닫히는 매 순간 신비롭게 펼쳐지는 빛의 형상에 감탄하며 촬영에 임하는 회원들의 열정에 예정 시간이 훌쩍 넘긴 늦은 시간에 라이트 페인팅 촬영을 마감할 수 있었다.

촬영이 끝난 후에도 남아있는 아쉬움과 설렘을 송도 야경 촬영으로 달래며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이번 촬영회를 마무리하였다. 생물로 피어나는 꽃이 아닌 빛으로 그려지는 아름다운 빛의 꽃을 촬영하며 다음 촬영회를 기대해 본다.



동일액자

웹하드주소 <http://dongilframe.alltheway.kr/>
 웹하드 ID: dongil6444 / PW: 6444
dongil6444@hanmail.net

- 하드락액자(광학필름) •디아섹액자(아크릴)
- 메탈액자(알루미늄판) •사진출력 및 기본수정

"작품에 기술을 더한 액자와 사진출력"

대한민국사진대전, 각종 전시회 제작

· 대표문의 010-6462-6266 · 다음 검색창에 **전주동일액자** 를 검색하세요

유수찬 이사장, “새 지도부 열린 조직 되어야” 제6기 촬영지도위원회 발대식



2025년 9월 27일(토)부터 28일(일)까지 충북 괴산 중원대학교 상생홀에서 제6기 촬영지도위원회 발대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제6기 촬영지도위원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고 촬영지도의 표준화 및 현장 교육의 체계화를 통해 국민이 함께 즐기는 생활예술 문화 확산을 목표로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유수찬 이사장, 김시묵 부이사장, 이성록 촬영지도위원회 위원장, 배택수 상임이사, 이막래 이사, 김형준 사무처장 등 참석해 제6기 촬영지도위원회의 출범을 축하했다.

발대식에서는 제6기 촬영지도위원회 위촉장 수여식이 함께 진행되었다. 강동영 회장이 제6기 촬영지도위원회 회장으로 당선되었으며, 유수찬 이사장이 직접 당선증을 전달하며 축하의 뜻을 전했다.

유수찬 이사장은 “촬영지도위원은 한국사진예술의 현장을 이끄는 핵심 주체로서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술을 가르치고 나누는 역할을 맡고 있다”며 “새로운 지도부를 중심으로 협회가 더욱 열린 예술조직으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남윤 김완기 사진·시조집 제2집 「고향의 노래」출판



교육자이며 사진작가로 살아온 김완기(본협회 운영자문위원위원회 부위원장)가 43년의 교직 생활과 57년의 사진 창작활동을 거울삼아 두 번째 사진·시조집을 「고향의 노래」 출판하여 화제를 모으고 있다.

교육자로서 그는 교사·교감·교장으로 교육 현장에서 학생을 가르쳤고, 34세에 교육 전문직에 발탁되어 장학사·장학관·교육연구관을 두루 거치면서 서울 성북교육장과 교육부 초·중·고교정책과장을 역임하였다. 그는 1969년 대한민국미술전람회(국전)에 입선을 계기로 사진예술에 심취되어 대한민국사진대전 초대작가로 교육과 사진의 두 길을 걸어오다가 2023년에 시조 시인으로 등단하면서 사진과 시조는 그의 새로운 두 길이 되었다.

팔순을 맞이하여 그가 사진 이미지에 시조를 접목하여 2023년에 처음으로 김완기 사진·시조집 『정겨웠던 순간들』을 출판한 데 이어 이번에 두 번째 사진·시조집 「고향의 노래」를 출판하기에 이르렀다.

충청도 두메산골에서 태어나 자연을 벗 삼아 자라난 그가 제1부 '두메산골 내 고향'과 제2부 '아름다운 자연'으로 나누어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며 고향 사랑의 애뜻한 그리움을 담고 있어 고향을 떠나 타향살이 경험에 있는 모든 이에게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출판 일시 : 2025. 9. 17

저자 : 김완기(010-4464-1724)

출판사 : 아이비 애드(02-2274-4110)

사이즈 : 148×210mm(칼라)/214페이지(무선제본)

가격 : 25,000원

회비납부 안내사항

안녕하십니까? 회원님 늘 회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의 평안을 기원드립니다.

2025년 본 협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원님들의 회비납부를 아래와 같이 요청드리오니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광역시지회 및 지부 회비납부(회원님께서 소속한 지회, 지부에 납부)
지회, 지부 전용 계좌 : 농협은행 301-0156-2082-01
- 서울 구지부에 소속되지 않은 본 협회소속 서울회원
: 연회비 10만원 본 협회에 납부 (**국민은행 031-25-0001-564**)
- 회비 문의 : 재무팀 02-2655-3135

- 회비가 납부되지 않을 경우

- : 월간 한국사진 발송 중단(회원님들의 회비로 제작)
- : 광역시지회, 지부 운영규정에 의거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정지
- : 회원 입회규정 제5조 1항에 의거 2년 이상의 회비 미납시 정권
- 정권 후 1년 이내에 회비 미납시 제적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발전기금적립 내역

(2025년 10월말 현재)

□ 27대까지 적립금(2017.2월말) : 798,001,466

□ 28대까지 적립금(2020.2월말) : 218,172,424

□ 29대까지 적립금(2023.2월말) : 93,715,796

□ 30대적립금(2023.3월~9월말) : 125,025,862

계 : 1,234,915,548 (a)

○입회자 발전기금 계 : 335,500,000 (3,355명/발전기금100,000/인)

① 2017년 계 : 36,600,000 ※특별회원2명 제외

② 2018년 계 : 53,200,000

③ 2019년 계 :100,900,000

⑤ 2020년 계 : 15,700,000 ※특별회원3명 제외

⑥ 2021년 계 : 27,700,000

⑦ 2022년 계 : 32,200,000

⑧ 2023년 계 : 16,900,000

⑨ 2024년 계 : 25,900,000

⑩ 2025년 계 : 26,400,000

▷ 2025년01월(108명): 10,800,000

▷ 2025년03월(56명): 5,600,000

▷ 2025년05월(27명): 2,700,000

▷ 2025년07월(33명): 3,300,000

▷ 2025년09월(40명): 4,000,000

○기타 계 : 101,414,082

▷ 이자(보통예금) : 68,628 (28대 누계)

81,623 (29대 누계)

55,987 (30대 누계)

▷ 이자(정기예금) : 24,403,796 (28대 누계)

17,034,173 (29대 누계)

47,769,875 (30대 누계)

▷ 이자(임차보증금) : 4,000,000 (29대 누계)

▷ 이자(임차보증금) : 8,000,000 (30대 누계)

○운용 계 : 400,000,000 (b)

▷ 사무실 이전 임차보증금 : 400,000,000 (목동,한국예총 건물)

□ 총 적립금 잔액 : 834,915,548 (a-b)

2025 전국 사진강좌 안내(11월)			
사진강좌	지회.지부	강좌일시	장소
군산전국사진강좌	군산지부	11월 01일(토) 오후1시~5시	군산예술의전당 2공연장
파주전국사진강좌	파주지부	11월 08일(토) 오후1시~5시	운정행복센터다목적실

결혼을 축하합니다.

정종관(나주) 이사 자녀 결혼
2025년 10월 19일(토) 오후2시 메종 드 아나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김낙호(성남) 회원님 별세
별세 2025년 10월 15일 발인 2025년 10월 17일

신비의섬제주

제주도 촬영지도 권기갑

연락처 : 01036965202



제주도 촬영 지도안내

제주도 풍경 및 장노출 지도 촬영시간 1일 8~10시간 기준

1명~3명 지도비 20만 원 삼각대 무료대여 (단체는 별도문의)

“개인전시를 위한 (포토스토리) 1년 작업 촬영지도 별도문의”

축하합니다

(10월 입회자)



김용덕(특별회원)



김순희(강북구, 정)



김희배(강북구, 정)



조종연(강북구, 정)



김형식(마포구, 정)



오병철(광주, 정)



장상기(광주, 정)



김흥순(대전, 정)



이영실(부산, 정)



전선자(부산, 정)



곽상금(울산, 정)



윤영미(고양, 정)



민효주(부천, 정)



김윤자(성남, 정)



박경숙(성남, 정)



박영욱(성남, 준)



배영훈(성남, 정)



서광종(성남, 정)



이종민(성남, 준)



차영권(안양, 정)



정재화(양주, 정)



박명호(의정부, 정)



정남호(안동, 정)



노승문(화성, 정)



황영호(밀양, 정)



이은정(양산, 정)



배춘덕(통영, 준)



조재원(김제, 정)



구경순(부산, 준)



김숙희(목포, 정)



남효섭(목포, 정)



이승주(목포, 정)



이화선(목포, 정)



조기문(목포, 정)



김정환(화순, 정)



조윤희(음성, 정)



김명방(보령, 정)



김춘식(보령,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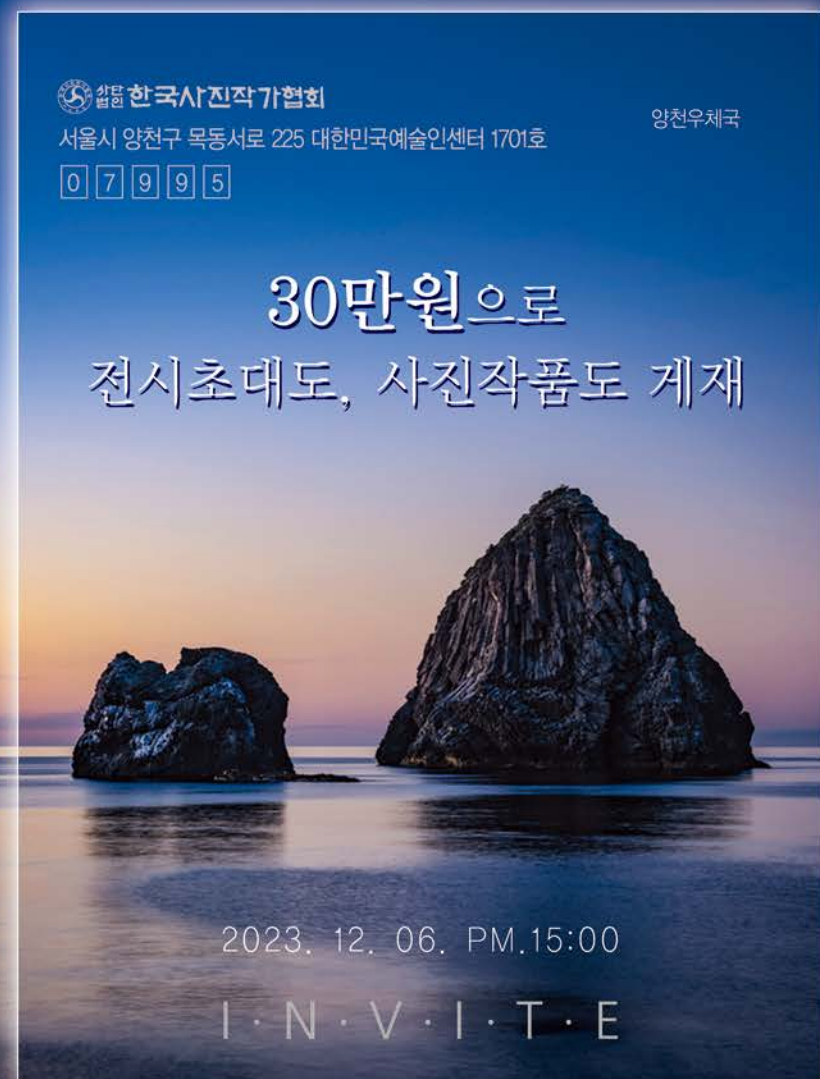
박미숙(서산, 정)



설용환(예산, 정)

대한민국 사진전문잡지 최대발행 부수 - 매월1만부

1만명에게 보내는 초대장!!



2023. 현재 우편엽서 125×175mm 기준 1통 발송비 400원

■ 게재 방법 안내

- 전시일정 사항, 작가노트, 전시작품 원본 15컷 이내 - 전월 20일 이내 전달요망 (전시 한 달 또는 두 달 전 게재해 주시면 됩니다)
- 입금계좌 국민은행(031-25-0001-564) 예금주 (사)한국사진작가협회
- 전달 이메일 sss0244@naver.com · 게재 된 월간 한국사진 20부 배부
- 게재 문의 02-2655-3131 (또는 편집장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부억도_과일과 날씨(Fruit & Weather)

윤은숙 개인전



전시일시 2025년 11월 4일(화) ~ 11월 25일(화)

전시장소 하갤러리 (관람시간 12:00-18:00, 매주 월요일 휴관)
(서울시 서초구 마방로 6길 8-45)

세미나 “사진가를 위한 AI 워크폴로” 2025년 11월 7일(금) 15:30

오프닝리셉션 2025년 11월 7일(금) 17:30

전시작가 윤은숙(010-2850-7363)

나는 2024년 초, 생성형 AI를 처음 접했다. 문장을 입력하면 이미지가 나오는 경험은 놀라움과 우려를 동시에 불러 일으켰다. 그러나 곧 생각이 바뀌었다. 오래전부터 구상했지만 여건상 제작하기 어려웠던 작업을 미리 시험해 보는 pre-production 도구로, 혹은 현실적으로 촬영이 불가능한 이미지를 구현하는 확장된 제작 도구로 AI를 쓸 수 있겠 다는 확신이 들었다. <중략>

30년 동안 필름·디지털·포토샵을 거쳐온 내게 AI는 두렵지만 매혹적인 새로운 동료다. 이 작업은 생성형 AI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다만 이미지를 탄생시키는 최종 책임은 여전히 작가의 판단과 감각에 있다. 나는 이 동료와 함 께, 사적인 일상을 다뤘던 '부억도'를 자연과 기후의 스케일로 확장해 보고자 한다. <작가노트 중에서>



산빛, 순간과 영원의 경계에 서다

윤영녀 사진전 및 출판기념회

산정에 오르셨을 때, 마치 선계를 거니는 듯한 경이와 잊지 못 할 짜릿함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난 이십 년 가까운 세월, 산은 제 영혼의 연인이자 가장 엄정한 스승이었습니다. 어둠 속 길을 찾는 이에게 희망의 빛이 비치듯, 새벽 인적 없는 산길을 오르는 여정은 숙명이며 동시에 설렘이었습니다. 그 길 위에서 제 카메라는 단순한 시선의 기록자를 넘어, 웅장한 자연 속에서 길어 올린 사색과 가슴 저미는 경외심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중략>



오랜 시간 산을 오르며 만났던 순간들 중, 영혼을 울렸던 빛과 색, 그리고 운해의 파노라마를 최선을 다해 포착하려 했던 집념 의 결정체입니다. 찰나의 절정 속에서 영원의 의미를 탐색하고, 사라져 가는 것들 속에서도 변치 않는 고유한 가치를 발견하고 자 했던 깊은 사색의 여정을 담아냈습니다. <작가노트 중에서>

전시일시 2025년 12월 10일(수) ~ 12월 16일(화)

전시장소 갤러리이즈(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길 52-1)

출판기념회 2025년 12월 13일(토) 14시

전시작가 윤영녀(010-2101-2780)

나한의 품에 안기다
古岩 김정호 첫 사진전



전시일시 2025년 11월 25일(화) ~ 12월 1일(월)
전시장소 창원문화재단 성산아트홀 제6전시실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81)
초대일시 2025년 11월 26일(수) 오후6시30분
전시작가 김정호(010-2845-0414)

서시(Poem)
돌은 말이 없지만
세월의 얼굴로 증언하고,
구름은 머물지 않지만
잠시 기도의 자리를 빌려줍니다.

빛은 사라지지만
그 순간 마음에 남아 길이 되고,
침묵은 공허하지 않고
깊은 울림이 되어 우리를 감쌌니다. <작가노트 중에서>



2025 창립4주년 가람회 전시회 개최



전시일시 2025년 11월 16일(일) ~ 11월 30일(일)
전시장소 화정미술관
전남 고흥군 남양면 고흥로 3764(남양면 중산리)
전시오프닝 2025년 11월 22일(토) 오후3시
전시작가 문익희 박공덕 박만석 박오복 윤현옥
전승원 전태국 정 동 주우신 함춘동

대한민국사진대전 초대작가 & 추천작가 모임인 가람회가 창립4주년을 맞이하여
맞이하여 '우주항공 중심도시' 고흥에서 전시를 합니다. <작가노트 중에서>

안산 옛 사진전
강준희 초대전 및 출판기념회



어둠이 짙게 깔린 저녁 컴퓨터 의자에 앉아 옛 필름을 정리하다 커튼을 젖히고 창밖을 보니 부슬부슬 가을비가 내린다. 잠깐 생각에 잠긴 나는 20대까지 살았던 정든 고향에서의 엄마 품을 그리워하며 허전함에 빠져든다. <중략>

별일 아닌 듯 사진을 좋아하게 되었고 사진 입문 후 초보 시절을 지나 이제 사진을 알게 되면서 그 마력에 더 깊게 빠져든다. 한때는 몸도 마음도 힘들었던 시간도 있었지만 지금은 내 삶의 한 부분이고 언제까지나 좋은 동반자이자 내 삶에 중요한 한 축이다.
오늘 보여지는 옛 내고향 안산의 모습에서 엄마 품을 느끼려 한다. <작가노트 중에서>

전시일시 2025년 12월 2일(화) ~ 12월 7일(일)
전시장소 안산예술의전당 화랑전시관 제2전시실
개막식 및 출판기념회 2025년 12월 3일(수) 오후3시
전시작가 강준희(010-6322-3955)



變遷(변천) - 60년의 세월을 담다
米壽(미수, 88세) 기념 寫光(사광) 김삼경 개인전 및 출판기념회



1967년, 어두운 암실에서 붉은빛 조명 아래 처음 마주한 현상의 순간은, 제 사진 인생의 기원이며 본질을 깨우쳐 준 원체험입니다. 무(無)의 백지 위로 유(有)의 형상이 서서히 드러나는 그 마법 같은 과정은, 마치 미지의 세계가 스스로 드러내는 신성한 의식처럼 느껴졌습니다. <중략>

결국 이 작품집은 60여 년간 제가 지나온 '시간의 변천'과 그 속에서 제가 경험한 '사진의 변천'에 대한 깊은 사유의 결과물입니다. 필름의 입자가 지닌 아날로그적 감성부터 디지털의 선명함이 선사하는 새로운 가능성까지, 제 작품은 이 거대한 흐름의 흔적들을 오롯이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작업은 여전히 미완의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셔터를 누를 힘이 남아있는 한, 저는 더 깊은 영상 언어를 품은 작품을 찾아 끊임없이 탐구하며 저의 작업을 이어갈 것입니다. <작가노트 중에서>

전시장소 경남문화예술회관 제2전시관
전시기간 2025년 11월 13일(목) ~ 11월 18일(화)
출판기념회 2025년 11월 15일(토) 17:00
전시주관 진평포토클럽
전시후원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경남도지회,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진주시부, 경상포토클럽
전시작가 김삼경(010-3863-3788)

빛의 숨_세월의 결

단국대학교 사진예술아카데미 사진연구회 회원전



전시일시 2025년 11월 12일(수) ~ 11월 17일(월)

전시장소 인사아트프라자 갤러리 6관

전시오픈닝 2025년 11월 12일(수) 오후 4시

참여작가 박현기, 구일회, 김경수, 김경연, 김경희, 김기홍,
김연수, 김영균, 김종성 김지수, 김현숙, 류남순,
박향숙, 서춘희, 양진섭, 이정숙, 정성만, 최광식
최희자, 한응렬, 황용엽

빛은 사진의 언어입니다. 셔터가 열리고 닫히는 순간,
빛은 숨결처럼 스며들어 시간을 머물게 합니다. 이번
전시는 단국대학교 사진연구회가 11년 동안 이어온
기록이자, 삶의 흐름 속에서 빛이 남긴 흔적을 담아낸
여정입니다. <중략>

‘빛의 숨’을 따라가며, 그 안에 아로새겨진 세월의 결
을 발견하는 자리입니다. 사진은 빛과 시간을 엮어 숨
결을 남기고, 세월의 무늬를 새겨냅니다. 그 속에서 우
리는 삶의 흐름과 기억의 결을 다시 바라보고, 결국 우
리의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작가노트 중에서>

전성진 개인전

전시일시 2025년 11월 14일(금) ~ 11월 19일(수)

전시장소 칠통마당 / 갤러리 디담(인천시 중구 제물량로 218번길 3)
(관람시간 9시~17시, 일요일 휴관)

전시오픈닝 2025년 11월 15일(토) 17:30

전시작가 전성진(010-8721-3929)



우리가 살아가는 사바세계는 질서가 무너지고 우주법계 속에서, 재앙은 반복되고
인간의 마음은 흔들립니다.

하지만 저는 이 혼란의 시대에도 피어남의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도 맑고 고운 꽃을 피웁니다. 그 모습은 마치 절망 속에서도 희
망을 잉태하는 인간의 마음과 닮았습니다. <작가노트 중에서>

아름다운 흔적을 보다

정동화 사진전

전시일시 2025년 10월27일(월) ~ 11월2일(일)

전시장소 갤러리 뉴웨이브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역1길 49 (2층)

전시오픈 2025년 10월28일(화) 15시

전시작가 정동화(010-7292-1241)

교통안내 지하철(대구1호선) 대명역 3번출구



언제부터인가 소나무 촬영이 끝나면 새로운 소재가 없을까 두리번 거리며 솔밭 주
위를 돌아다니는 버릇이 생겼다. 특히 안개가 낀 새벽의 소나무 촬영은 공치는 날이
많았다. 안개가 너무 많아도 실패였고 적어도 실패였다. 촬영 실패에 따른 아쉬움과
허탈한 마음으로 소나무 숲을 배회하며 새로운 소재를 찾아다녔다. <중략>

그러던 어느날, 우연히 내 발 아래에서 무언가 바스라지는 소리가 들렸다. 오래 된
소나무 수피였다. 나는 그 수피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던,
풍상에 깎이고 별레 먹은 수피의 문양들이 내 마음을 흔들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기묘한 동물 모습과 물고기 형상 등, 떨어져 발아래 널브러진 수피의 형상들이 어찌
면 내 지난 삶의 흔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작가노트 중에서>

뿌리깊은 고독 Deep rooted solitude

송인호 개인전(3 Solo Ex)

전시일시 2025년 12월 16일(화) ~ 12월 21일(일)

개 전 식 2025년 12월 17일(수) 오후15:00시

전시장소 대전예술가의 집

전시작가 송인호(010-8813-6666)



홀로선 나무는 내 자신의 초상이다.

이 전시 “뿌리깊은 고독”은 홀로선 나무들과 내가 나눈 깊은
연대의 기록이다.

2025 "사계절 매력 넘치는 감성도시 창원"

창원관광사진 전국공모전

접수기간

2025.10.15~11.14. 18:00 도착분

공모주제

사계절 매력 넘치는 감성도시 창원

공모자격

제한 없음(단, 개인자격으로만 응모 가능)

공모 내용

창원 주요 관광지를 소재로 한 작품 중 미발표작으로

- 창원 명소의 아름다운 사계절 경관 등을 담은 사진
- 활기찬 창원의 축제 등을 표현한 사진
(진해군항제, 마산가고파국화축제 등)
- 나만 알고 있기 아까운 특별한 장소를 담은 사진

소재분야	내 용
자연자원	산, 강, 섬, 계곡, 호수, 바다, 저수지, 다리, 생태환경, 공원 등
관광명소	주요 관광지 (괘이강의 다리, 창원수목원, 경화역공원, 여좌천, 돌섬, 3·15해양누리공원 등) 전통문화 (사찰, 문화유적, 전통마을, 박물관, 기념관, 역사유적지 등) 테마길 (가로수길, 카페거리, 상상길, 둘레길, 진해군항마을역사길, 진해드림로드 등)
관광체험	문화·예술 공연, 농어촌 체험, 레포츠 등
축 제	진해군항제, 마산가고파국화축제, K-POP 월드 페스티벌 등
기 타	숨은 매력이 넘치는 창원 관광지

작품 활용

- 입선작 이상 작품집 제작/배포 및 사진전시회 전시작품으로 활용
- 창원관광 홈페이지 사진자료 게시
- 창원관광 홍보자료 활용

문의 사항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진해지부 055-543-1158

주 치 | 창원특례시

주 관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진해지부

접수 방법

출 품 수: 1인 4점 이내

작품규격: 11x14인치 흑백 또는 칼라사진

♣ 2024년 이후 촬영한 작품으로 필름 또는 디지털카메라로 촬영된 사진 작품은 원판 필름이나 JPG 또는 RAW 원본파일 5MB 이상 드론사진 [항공촬영허가증 제출, 입상권 제외]

출 품 료: 1인 20,000원

제출서류: 출품신청서, 작품사진 (원본파일은 수상자에 한해 제출)

접 수 처: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진해지부

경남 창원시 진해구 벚꽃로 61 (진해카메라스튜디오)

심사 및 시상식

심 사: 2025년 11월

당선발표: 창원시 및 (사)한국사진작가협회 홈페이지 게시, 개별 통보

시상

사진전 개막 시 상장 수여 진행 (시상금은 계좌입금)

구 분	작 품 수	시 상 금	비 고
계	71점	1,300만원	
금 상	1점	300만원	
은 상	2점	200만원	각 100만원
동 상	3점	150만원	각 50만원
입 선	65점	650만원	각 10만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특례시

홈페이지(www.changwon.go.kr) 공고문 참고

2025 제40회

남원 전국 사진 공모전

사진 예술의 발전과 사진인구 저변확대를 위하여 춘향의 얼을 널리 알리고자 실시하는 남원전국사진공모전에 전국 사진 동호인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작품내용 미풍양속에 저촉 되지 않는 국내외 미발표 자유작
- 작품규격 11"× 14" (컬러 및 흑백)에 한함 (※ 한국사협 입회점수 인정)
- 출 품 료 1인당 2만원 - (4점 이내) / 작품집 증정
- 출품요령 출품표에 제목 성명 주소 우편번호 연락처(꼭) 기입요망
- 출 품 처 (우) 55775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남문로 446 한국사진작가협회 남원지부 (지부장 010-6530-2609, 사무국장 010-6600-6306)
- 심사발표 한국사협 및 남원지부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남원지부- <http://cafe.daum.net/photo-nw> 심사발표: 12월 10일
- 시상내역 금 상 1점 - 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상장 및 상금 100만원
은 상 2점 - 한국사진작가협회 남원지부장상 및 상금 각 30만원
동 상 3점 - 한국사진작가협회 남원지부장상
가 작 5점 - 한국사진작가협회 남원지부장상
장려상 5점 - 한국사진작가협회 남원지부장상
입선 출품자수의 20% - 한국사진작가협회 남원지부장상
- 시상 및 전시 한국사협 남원지부 홈페이지참조
- 기(유의)타 1) 동일 작품 및 유사작품을 출품하여 입상, 입선될 경우 상권이 취소되며 한국사협회원은 징계, 비회원은 7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한국사협 입회가 유보됨.
2) 입상, 입선 작품의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있으며, 주최측은 수상작에 한하여 향후 5년간 복제, 배포, 전시, 공중송신에 사용할 수 있음.
- 초상권 및 작품내용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 시 전적으로 출품자의 책임으로 함
3) 접수된 작품은 일체 반환하지 않고 시상 후 상장과 작품집만 반송함
4) 심사결과 발표 후 금상·은상·동상 입상자는 "16x20"으로 인화한 사진을 10일 이내에 본 지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5) 수상작품의 파일은 발표 후 7일 이내 V2609@hanmail.net 제출바람

접수마감

2025년도
12월 03일
(소인유효)

제21회

증평 전국사진 공모전



한국사진작가협회 증평지부에서 개최하는
제21회 증평전국사진공모전에
사진동호인 여러분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접수마감

2025년 11월 28일

공모요강

작품내용 미발표 자유작품

작품규격 컬러 및 흑백 11" × 14"(4점 이내)

접수마감 2025년 11월 28일(도착분)

출 품 료 1인당 20,000원

전시장소 증평 보강천 갤러리

시 상 식 추후 발표

접 수 처 [증평예총] 충북 증평군 증평읍 문화로 75 증평문화원내

심사발표 2025년 12월 8일(예정)

증평지부 홈페이지 참조 www.paskjp.kr

사상내역 **금상 1점** 한국사협 이사장 상장 및 상금 100만원

은상 2점 한국예총 증평지회장 상장 및 상금 30만원

동상 3점 한국사협 증평지부장 상장 및 상금 10만원

가작 5점 한국사협 증평지부장 상장

장려 5점 한국사협 증평지부장 상장

입선 접수 작품수의 20%내(입상 포함) 한국사협 증평지부장 상장

- 기타사항**
- 입선·입상 작품은 한국사진작가협회 입회접수 인정
 - 입상·입선 작품의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있으며 주최측은 수상작에 한하여 향후 5년간 복제, 배포, 전시, 공중송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동일작품 및 유사작품을 출품하여 입상(선)될 경우에는 상권이 취소됨은 물론 한국사협 회원은 징계, 비회원은 7년간 사협 입회자격이 유보됩니다.
 - 접수된 작품은 일체 반환하지않고 시상식 후 상장과 작품집만 반송합니다.
 - 입상 및 입선자는 jppask@naver.com으로 작품 파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도록 제작용)

문의 한국사진작가협회 증평지부

지부장 010-5469-9567 • 사무국장 010-8255-8219

공모전용 무한잉크 포토프린터

11R= 



정품무한잉크



4x6
2,100장
출력가능
엡손자료(L8050, L18050)

Wifi



출력속도
27초
(4R기준)
엡손자료(L8050, L18050)

용도	모델명	최대출력크기	정품무한잉크	협회 회원 특가	조건
공모전용	L18050	~ A3w(13inch)	6색 70ml	495,000	용지 5만원 함께 구매시 (용지선택자유)
개인용	L8050	~ A4w(8inch)		345,000	
A3 복합기	L8180	~ A3w(13inch)	6색 흑백특화	609,000	-

신지 스튜디오클럽은요! (프린터 구매시 사진관 가격으로 잉크&용지&액자 구매 가능)

포토프린터&정품잉크 Canon EPSON 사진관 전용 가격 제공 최대 30%할인	원목액자  Natural, Brown 11R=6,600원	사진용지 Canon EPSON SINJI 사진관 전용 가격제공	축제·행사 장비대여  1분 출력 촬영 즉석출력 현장에서 바로
---	--	--	--

pexar | by Lexar

pexar

펙사, 디지털 액자의 새로운 기준

“당신의 추억을 작품처럼”



2K
타사도 따라올 수 없는 선명도

사진 & 영상
간편한 공유

32GB
내부 저장공간

개인 정보 보호 및 보안 시스템 적용

구매하기

